

高麗寫經의 發願文에 關한 研究(Ⅱ)

|| 個人發願寫經을 中心으로 ||

權 熹 耕

一 序 論

高麗의 寫經中에는 個人이 發願한 作品들이 많이 遺存되고 있다.

이들 寫經들은 中央官僚나 地方의 土豪들이 그 실질적인 發願者로서 官等姓名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그중에는 僧侶가 發願하고 中央官僚 및 地方土豪들이 施財한 形式으로 되어 있는 寫經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도 僧侶는 寫經制作의 主管者이고 실질적인 發願者는 中央의 官職者이거나 地方의 土豪들이라는 것을 發願文의 내용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發願文의 內容에 있어서도 高麗國王 및 王室發願寫經의 發願文①과는 달리 個人發願寫經의 경우 훨씬 多樣하다. 이같이 多様な 內容을 지닌 個人發願寫經의 發願文에 關한 研究는 高麗寫經의 성격구명이라는 觀點에서 볼때 重要한 基礎資料의 정리라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發願文에 나타난 官職과 品階 그리고 發願者 및 施財者로 등장하고 있는 人物들은 高麗의 個人發願寫經이 어떠한 性格을 띠고 寫成되었는가에 하는 問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가장 重要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러한 資料의 정리를 通해 高麗寫經의 時代의 背景과 特性을 연구코자하며 後期

에 寫成된 作品들이 元의 세력과는 어떠한 關係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 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各寫經의 發願文의 原文을 소개하고 이들에 關한 史料들을 通해 연구분석코자 한다.

二 本 論

(一) 「佛說彌勒成佛經」②

〔尾 書〕

〔弟子高麗國青州官內懷仁縣戶長陪戎校尉李英位

聖壽天長福祚無窮兵戈不起於三

邊 佛法長興於萬世天下太平 法輪常

輪五穀豐登人民常樂謹成三卷金字彌勒

經普勸受持永充供養

時乙卯五月 日謹記

이 寫經은 顯宗六年(一〇一五)의 作品으로 推定되며 高麗의 個人發願 中 가장 오래된 作品이라 史料된다. 이 寫經에 關해서는 「考古美術」一 六五호에 掲載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한다.

(二) 大般若波羅密多經卷第一七五③

〔尾 書〕

〔菩薩戒弟子南瞻部洲高麗國金吾衛大將太相太子左藍門率府率金融範 奉爲

君王萬壽家國一平及先落祖親後亡考妣

成兄將第妻與孥焉存樂生沒子成

果金銀字六百般若經也

時清寧年三月 日記

清寧年間(一〇五五~一〇六四)에 制作된 이 寫經은 「大寶積經」④「佛說彌勒成佛經」과 더불어 高麗前期 作品이다. 現存하는 高麗寫經은 이 세개의 作品을 제외한다면 거의가 忠烈王以後의 作品이다.

菩薩戒弟子南瞻部洲高麗國으로 시작하여 發願者의 官職과 姓名을 기록하는 이와 같은 양식은 高麗前期의 版經이나 寫經發願文의 독특한 樣式이었던 것 같다. 初彫藏經⑤과 「大寶積經」 「佛說彌勒成佛經」이 모두 이 樣式을 따르고 있다.

「大般若波羅密多經卷第一七五」의 發願者 金融範이라는 人物은 金吾衛의 大將軍이었다. 金吾衛는 二軍六衛의 하나로 上將軍一名과 大將軍一名을 두고 있는데 上將軍은 正三品 大將軍은 從三品이었다⑥. 六衛는 太祖二年에 설치 되었으며 恭讓王때는 二軍六衛를 나란히 八衛라 칭했다⑦.

大相이란 高麗初의 官階로서 太祖가 泰封의 制度를 그대로 따라 大匡, 大丞, 大相의 號를 사용했던데서 비롯된 것으로 當時는 文武의 區別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成宗十四년에 文武官階가 분리되었고 이때 文官을 고쳐 大匡을 開府儀同三司라 하고 正匡을 特進이라 하고 大丞을 興祿大夫, 大相을 金紫興祿大夫⑧라 하였다. 文宗때 와서 다시 한차례 官制가 改正되어 文散階二十九品으로 나뉘었으나 이것은 同王三〇年의 일이므로 「大般若波羅密多經」一七五가 寫成된 清寧年인 文宗一八⑨年은 成宗의 官制改正 以後 아직 變動이 없었을 때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大般若波羅密多經」卷第一七五의 尾書에 金吾衛大將軍大相이라고 기록되고 있음은 成宗一四年에 비록 制度의 改正이 있어 官職과 品階가 정립되었다고는 하나 國初의 습관대로 文武의 區別이 없던 泰封의 制度가 아직도 그대로 通用되고 있었음이 아닌가 史料된다.

또한 太子左監門率府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高麗史」百官志 東宮官條에 의하면

「顯宗十三年, 立太子, 置師保, 及官屬(中略), 文宗八年, 命有司, 選三品之孫, 五品以上官之子, 二十人, 爲東宮侍衛公子, 五品之孫, 七品以

上官之子, 十人, 爲侍衛給事, 永爲定制, 二十二年, 置大師, 大傅, 大保各一人從一品, 少師·少傅·少保各一人從二品, 賓客四人, 正三品, 左右庶子, 各一人, 正四品, 左右諭德各一人, 正四品, 侍講學士·侍讀學士各一人, 從四品等等(中略)左右司禦率府, 率·副率, 左右監門率府, 率·副率, 左右清道率府, 率·副率, 左右內率府, 率·副率, 又有侍衛上大將軍(下略)」

위의 記錄으로 東宮官의 制度는 顯宗一三年 처음으로 太子册立과 더불어 마련되었으며 文宗八年 다시 東宮官에 보완이 있었으니 王이 有司에게 명하여 三品官의 손자와 五品以上官의 아들 二〇名을 뽑아 侍衛公子로 삼고 五品官의 손자와 七品以上官의 아들 一〇名을 侍衛給事로 삼았으며 이를 영구한 制度로 정했다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東宮官의 改正은 同王二二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行해졌으니 이때 左監門率府가 생겨 率과 副率를 두었고 侍衛上大將軍도 두게 된다.

이와 같은 「高麗史」百官志의 記錄과는 달리 「大般若波羅密多經」의 發願文은 清寧年間に 이 寫經이 制作되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金吾衛의 大將軍 金融範으로 하여금 左監門率府의 率의 임무를 맡기고 있었으니 文宗二二年前부터 東宮官의 職制는 細分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寫經의 尾書 發願文에 기록되고 있는 太子는 延德宮妃의 長子佺로 서 文宗七年 勳으로 改名하여 太子로 册할 것이 定해진 후 同王八年나 이七세로 太子에 册封되어 후일 順宗이 되었다.

그러므로 金吾衛의 大將軍이었던 金融範은 文宗十八年 勳이 太子로 册封된 후 太子左監門率府의 率이 되어 이 寫經을 制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金融範이 太子左監門率府의 率로서 이 「大般若波羅密多經」을 寫成했다고 하더라도 王室發願寫經과는 이 寫經의 성격이 다르다.

發願者가 金融範이라는 점도 그러하거나⑩ 發願文의 樣式도 그러하다.

君王之 萬壽無疆을 빌고 家國이 一平하기를 빌고 있으나 이는 寫經의 書式^⑩일뿐 죽은 조부모와 부모의 冥福을 빌고 살아 있는 형제처자를 위해 六百般若를 제작했다는 內容으로 미루어 볼때 王室이 직접관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淸寧이라는 遼의 年號를 使用하고 있는데 이는 契丹침공후 使用해 오던 年號이며 上述한 太子册立에 있어서도 金良贊을 聘見하여 이를 契丹에 告했다는^⑫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당연한 일이라 史料되며 이와 더불어 淸寧九年(一〇六三) 즉 高麗로서는 文宗一七년에 道宗이 契丹藏經을 보내왔다^⑬는 사실과도 관련시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三) 法華經書塔^⑭

〔書塔아래쪽의 發願文〕

法華 塔 於寫經而 竊 幸 宗

新安公及寫經比堅 以 以 金銀泥 成靈寶 我聖上億輩統與 天齊壽千祥競 至刀禍爭消諸齡地 久國歲康寧隣 兵永侵國泰 民安 時和歲 稔法界含靈等資饒 虛空 盡願不盡已西十二日誌

神孝寺典香道人

이 發願文에 宗室新安公은 高宗때 蒙古와 江華島의 高麗王 高宗 사이를 왕래하며 高宗의 代辯人 노릇을 한 宗室의 王侁이다.^⑮ 더구나 이 寫經이 制作된 해인 高宗三六年은 「高麗史」에 의하면 二월에 新安公 王侁이 蒙古로 부터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 그해 二월 新安公은 蒙古로부터 돌아오자 자신의 무사함에 감사하여 이 「法華經書塔」을 神孝寺 典香에게 시켜서 寫成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高宗三六年은 바로 八萬大藏經이 完成되기도 한 해이다.^⑯

新安公 王侁은 元宗元년에 죽었다.

(四) 大方廣佛華嚴經七一、七二·七三 및 普賢行願品^⑰

〔尾 書〕

「長安終南山萬壽禪寺住持光明禪師惠月 隴西人也、九歲落髮波緇、一踞荷蘭山寺 瞻禮道明大禪伯爲出世之師、旦夕忝參 得發輝之印、先遊塞北、後歷江南、福建 路曾乘於權、嘉興府亦預爲錄首、忖念緇 之濫汰惟思佛法之難逢、捨梯已財、鋪陳 惠施、印造十二之大藏、剃度二八之法服、 書金銀字八十一卷圓覺起信相隨、寫法華 經二十八篇梵剛各部、集茲勝善、普 結良緣、皇恩佛恩、而願報無窮、祖意教 意、而發明正性、師長父母、同乘般若之 茲舟、法界衆生、其泛毗盧之性海

至元二十八年歲次辛卯四月八日

光明禪師惠月謹題」

이 寫經은 發願文의 記錄으로 봐서 至元二八年 辛卯四月(一二九一)、 高麗忠烈王一七년에 中國長安의 終南山萬壽寺住持인 光明禪師 惠月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元의 作品이라 보아야하겠지만 變相畫의 樣式이나 書體등이 高麗寫經과 많이 닮아있어 주목되고 있다. 發願文을 살펴보면 長安의 終南山의 萬壽寺住持光明禪師 惠月은 隴西面 사람이니 九세에 落髮(중이되기 위해 머리를 깎음)하고 緇(승복)을 입으니 한때 荷蘭山寺에 있었는데 道明大禪師伯을 瞻禮하여 出世의 師로 삼았다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忝參해서 發揮의 印을 얻었다고 하며, 먼저 塞北에서 유람한 후 江南을 踰越하여 禁建路에서 權(僧權)^⑱은 모 아퀴니 嘉興府에서 역시 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緇衣(僧服)가

남의 눈에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지 않나를 염두에 두고 재산에 몸을 의지하려 하지 않으며 鋪陳의 은혜를 베풀어 十二大藏을 印造했고, 28의 僧에게 머리를 깎고 佛道에 들게 했으며, 五十三部の 華嚴經을 널리 퍼트렸으며 一百八條의 法服을 舍했다는 것이다. 金銀字八十一卷을 圓覺·起信의 相隨로 書하고 法華經 二十八篇, 梵網·金剛各部를 寫成하니 이 勝善을 모아서 넓게 良緣을 묶는다고 했으며, 皇恩·佛恩에는 無窮토록 보답하기를 원하며 祖意·教意에는 正性을 發明케 했다는 것이다. 師長과 父母는 다 같이 般若의 자비로운 舟에 타고 法界의 生을 毗盧의 性海에 띄우게 한다는 內容이다.

이상과 같은 發願文의 內容으로 봐서는 일단 光明禪師惠月은 몽고인이거나 漢人으로 볼 수 있으니, 이에 關한 證據로서는 그가 甘肅省의 隴西人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隴西는 반드시 甘肅省의 隴西라고만 할 수 없으니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高麗때 全國의 各地名을 中國의 地方名으로서 別號를 삼았다고 하며 黃海道 端興을 隴西라고 하였다. 기록이 있으므로 隴西라는 記錄만으로는 惠月이 蒙古人이거나 漢人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가 塞北을 먼저 유람하고 江南의 땅에 轉려 했다는 上記의 記錄이 中國의 甘肅省의 隴西人이라는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至元二八年이면 高麗의 寫經僧이 이미 몇 차례 蒙古에 끌려간 후이며 微用 當해간 寫經僧중에는 喇嘛教를 배우기 위해 혹은 그에 대한 관심으로 土蕃까지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와 關連하여 「高麗史」를 살펴보면 忠烈王二〇年 七月에 咆思八八哈思가 喇嘛僧이 되어 元의 成宗의 沙門保護의 詔를 가지고 歸國했는데 이는 三別抄의 亂 때 蒙古軍에 끌려갔던 高麗의 珍島人이었다는 記錄이 있어 上記한 내용이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惠月²⁰이라는 僧에 關해서는 至正改元元년에 元에서 활약하던 高麗僧 慧月과 關連시켜 볼만한 일이지만, 惠와 慧의 글자가 틀린다는 것 외에도 慧月이 활약한 시기는 이 寫經이 제작된 五〇年後이므로 慧月과 惠月을 關連시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五) 妙法蓮華經一部七卷及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部²¹
(日本京都·寶積寺)

〔尾書〕

〔伏爲
皇帝萬年
國王春秋

佛日增明法輪常轉先亡父母離苦得樂魚

及巳身一門眷屬各脫災殃同增福壽世

世生生常得吉祥見

佛聞法悟無生忍度諸有情方證菩提之願

倩人家中敬寫成銀字

法華經一部金光明經四卷阿彌陀經梵

行品各手大悲心陀羅尼等經用資福利

耳謹誌

至元三十一年甲午二月 日

功德主中正大夫宗簿令致仕安節

安東郡夫人李氏

同願 昌寧郡夫人張氏

京都寶積寺所藏의 妙法蓮華經七卷과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는 高麗寫經中 특 특한 양식을 지니고 있는데 妙法蓮華經第一卷本の 背面에 第二卷本 第三卷本 背面에 第四卷本을 第五卷本 背面에 第六卷本을 寫書하고 第七卷本の 背面에는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가 寫書되어 있다.

發願文은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의 卷尾에 上記한바와 같이 되어 있다. 至元三十一年(一二九四) 忠肅王二〇年 作品이다.

이 發願文의 書式은 皇帝萬年은 國王이나 佛보다 平出되어 있고 國王千秋와 佛은 다른 文章 보다 平出되어 있다. 특히 皇帝萬年이 國王千秋보다

秋와 佛은 다른 文章 보다 平出되어 있다. 특히 皇帝萬年이 國王千秋보다

秋와 佛은 다른 文章 보다 平出되어 있다. 특히 皇帝萬年이 國王千秋보다

平出되고 있는 이 書式은 高麗初의 版經이나 寫經에서 보여 주는 聖壽天長으로 띄여지는 尾書樣式과 더불어 高麗寫經研究에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위의 願文은 死亡한 부모의 冥福을 빌고 또한 發願者一門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福壽를 누릴것을 빌어 法華經一部와 阿彌陀經梵行品各手大悲心蛇羅尼 및 金光明經四卷을 銀字로 寫成했음을 적고 있다. 現在 金光明經은 遺存되지 않고 紺紙金字로 된 「父母恩重經」이 이들 寫經과 더불어 高麗時代에 제작된 經箱에 넣어져 보관되고 있다.

大功德主인 安節은 中正大夫로서 宗簿寺의 令의 官職을 지냈으나 이 寫經을 寫成했을 당시는 이미 官職에서 물러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百官志에 의하면 文宗에 의해 二十九品の 文散階가 정비될때 從四品이 中大夫였으며 中正大夫라는 品階는 보이지 않으며 忠烈王元年에 元의 官制와 이름이 같은것을 피하기 위해 文散階를 改制할때나 또한 그후 同王二四年 忠宣에 의해 다시 文散階를 정비할때도 從四品이 中大夫였다. 忠烈王三四年는 忠宣에 의해 또 한차례 改制때 와서야 從三品이 中正大夫였다²⁰⁾.

또한 宗簿寺의 令에 관해 살펴보면 忠烈王二〇年 이 作品이 띄여지던 때에 宗簿寺에 과연 令과 副令이 있었는지는 高麗史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 「高麗史」百官志에 나타난 記錄으로는 穆宗朝에 宗簿寺는 시작되어 文宗때 改正되었으며 忠烈王二四年에 宗正寺로 바뀌었다가 忠宣王二년에 다시 宗簿寺가 되었고 이 宗簿寺의 令이 從三品, 副令이 從四品이었다²¹⁾.

이러한 「高麗史」百官志의 記錄과는 달리 忠烈王二〇年에 寫成된 이 經典의 尾書에 나타난 大功德主 安節은 中正大夫로 宗簿寺의 令이라는 官職을 이미 致仕하고 있다. 그러므로 忠烈王二〇年 以前에도 宗簿寺에 令과 副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宗簿寺의 令의 品階와 中正大夫의 品階가 몇品인지는 알 수 없다.

宗簿寺는 族屬 및 譜牒을 장악하던²²⁾ 官署였던 만큼 宗簿寺의 令으로 있었던 安節이란 人物은 親元系의 人物이었음을 알 수 있다.

安節의 옆에 記錄된 安州郡夫人李氏는 安節의 妻인 것으로 史料되며 昌寧郡夫人張氏는 따로 同願으로 記錄하고 있으므로 安節이나 李氏의 친척으로 짐작된다.

이 發願文中 가장 주목되는 것은 「倩人家中敬寫銀字法華經一部云云」한 것으로 安節은 이들 寫經들을 그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寫成했음을 알 수 있다.

(六) 妙法蓮華經第七 卷本一部²³⁾

〔尾 書〕

特爲

國王宮主無諸災厄兵戈潛消國土
大平兼及己身不逢九禪速脫三界
盡未來却作大佛事亦願一門眷
屬無諸病苦無盡法界生亡共證
普提者

三月 日 誌

正議大夫密直司右丞與威衛上將軍判大府知軍
府簿司事 廉丞益

願我臨欲命終時 盡除諸障 礙

面見彼阿彌陀 即得生安樂刹

兼及妻氏永寧郡魯氏分身

女子小男等厄會消除壽命延長

成就曩願

十方諸佛菩薩 郎鑒」

이 寫經은 寫成年代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當時 正議大夫로 密直司의 右丞이었고 與威衛의 上將軍이었고 大府寺와 軍簿寺의 判書였던 廉丞益이 발원한 것이다.

경기도 開城青郊面德岩里 南溪院石塔에서 출토된²⁴⁾ 이 寫經은 忠烈王

때에王室과 가장 밀착되어 있던 嬖臣 廉承益이 發願한 寫經이라는 점에서 증시되는 作品이다.

高麗忠烈王代에 呪述의이고 神呪의인 思想의 復活이라는 點에서²⁵ 廉承益은 주목되는 人物이다.

「高麗史」列傳의 廉承益條를 살펴보면

「廉承益, 初名惟直, 政堂文學信若之後, 嘗得惡疾, 念浮屠神呪, 穿掌貫索精勤, 疾病爲事, 爲李之氏所薦, 得幸忠烈王(下略)」

이라는 記錄이 있고, 또한 「高麗史節要」의 忠烈王二八年條에는

「三月庚戌, 中贊棄官爲, 丞益醮信浮屠法, 剃髮被袈裟, 置炭火掌上, 焚香念佛, 顏色不變。」

이라는 기록이 있어 忠烈王 당시의 神呪의 思想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蒙古亂과 元의 支配下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高麗王室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에게 기적을 바라는 심리적 욕구가 이러한 神呪의인 방향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²⁶.

廉承益의 神呪의인 행위는 이러한 욕구에 어떤 만족을 주었을 것이 다²⁷.

이러한 嬖臣 廉承益이 金字의 「妙法蓮華經」을 寫成한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목되는 일이다.

嬖臣이었던 그가 密敎經典²⁸이 아닌 「妙法蓮華經」을 寫成한 것은 高麗의 祈福의 傳統性을 잘 나타내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法華經第二十三品の 藥王菩薩本事品の 法華靈驗²⁹에 의존해서 그의 일족과 자신에게 神異의인 靈驗에 의한 福이 오기를 기다리는 뜻에서 寫成했을 것이다.

이 寫經의 制作年代를 먼저 고찰코자 한다.

「高麗史」忠烈王世家 六年條에

「三月戊戌, 王與公主如玄化寺, 命丞旨廉丞益, 作佛殿(中略)七月癸卯, 移御丞旨廉丞益」

이라고 적고 있으며 또한 同王九年條에는

「秋七月戊年, 命廉丞益, 孔愉, 修玄化寺, 又修南溪院, 王輪寺石塔」이라는 記錄이 있고

「高麗史節要」에는 또한 同王七年條에

「律學助教金子公, 嘗爲安東法曹, 受賄, 見劾, 賂丞旨廉丞益, 復其, 任邑人前即將權文卓, 疏子公贓罪, 令其壻蠻商, 告僉議府丞益, 托王命囚文卓及蠻商, 殺商以滅口, 丞益權傾一國, 臺諫若罔聞知(中略)三月丞旨廉丞益請以其家一區, 金字大藏所, 許之, 初丞益持寵私役其人, 構此家, 擢公主見責, 有是請。」

이 記錄과 관련된 「高麗史」列傳 兼丞益條의 記錄에서는

「丞益, 權傾一國, 臺諫莫敢問, 嘗私役其人五十構第, 畏公主譴, 請獻爲大藏寫經所」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記錄들로 미루어 볼때 忠烈王의 廉丞益에 관한 신뢰와 그에게 준 총애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알만하다.

특히 忠烈王七年 그가 五十人을 사역시켜 저택을 짓다가 公主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그 집을 金字大藏寫經所로 내놓음으로서 다시 同王九年에 南溪院과 王輪寺石塔의 수리를 맡게 되었다고 본다.

이 寫經은 바로 자신의 집을 寫經所로 내놓았던 忠烈王七年부터 띄어져 同王九年 南溪院과 王輪寺石塔을 수리 할때 南溪院石塔에다 奉安했던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喇嘛佛敎에 심취해 있던 元世祖³⁰의 딸 齊國大長公主가 佛事에는 열심이었던 것도 이 기록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다음은 官職에 관해 고찰코자 한다. 「高麗史」百官志의 記錄으로는 忠烈王 당시 正議大夫는 散階가 正三品이었다³¹.

密直司右丞旨에 관한 史料로서는 同書忠烈王世家 十年條에

「十年二日戊子, 以副知密司事廉丞益, 爲慶尙·全羅·忠淸者巡問使」라는 記錄이 있고, 또한 「高麗史」百官志密直司條에

皇帝萬年 潘王殿下福壽無疆

當今主上寶位天長諸王宗室共保康寧文

虎百僚忠貞奉國于戈不起國泰民安次願

同隨喜施主等現增福壽於當來世法華會

上同聞妙法共成妙果普及法界含靈速離

苦海俱成正覺耳

延祐二年 乙卯 八月 日

道環 誌

同願

日本 金澤 大乘寺及 松江 天倫寺 所藏의 妙法蓮華經七卷本 一部는 大乘寺에 卷第一이, 天倫寺에 卷第三·四·五·六·七이 보관되고 있다.

大乘寺의 第一卷의 卷尾에는

大功德主資善大夫典瑞院使宮正司宮正

神光君中 當住

만 적혀 있다.

天倫寺藏의 各卷에도 卷尾에 이러한 樣式의 尾書가 꼭 같이 보인다. 다만 第七卷의 尾書에 이에 잇달아 위의 發願文이 적혀 있다.

위와 같은 尾書로 이루어 볼때 이 寫經은 延祐二年(一三一五) 忠肅王二年에 寫成된 作品임을 알 수 있으며 大功德主는 資善大夫인 典瑞院의 使이며 또한 宮正司의 宮正인 神光君인 申當住가 발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資善大夫는 元의 文散官四二散官중 正二品에 해당한다³⁶⁾. 「典瑞院은

「元史」百官志에 의하면 中統元年 즉 元世祖元年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大德一一年(一三〇七)에는 院使四名을 두었는데 이들 使의 品階는 正二品이었다³⁷⁾.

「宮正司」는 「新元史」百官誌에 의하면 역시 元世祖元年 「府正司」로 설치되어 同帝三一年에 「宮正司」로 바뀌었다가 大德一一年 다시 「府正司」가 되었다. 宮正은 正三品이었다.

申當住라는 人物은 「東文撰」에 실린 李穀의 「大都天臺法王寺記」에 의

하면 그가 李穀에게 「重興龍泉寺碑」를 撰하도록 했다는 記錄이 있을뿐 아니라 「重修華嚴堂經板本記」에도 申黨住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이는 高麗僧 慧月이 至正改元元年에 華嚴堂의 扉門의 수리를 發願, 高麗卜과 申黨住에게 원조를 청했다고 한다³⁸⁾.

「申當住」와 「申黨住」는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申當住는 在元의 막강한 高麗人이었다.

發願文의 내용은 심히 깊고 미묘한 여러 法華經의 經典중에 특히 第六卷에 수록되고 있는 第二三三品의 「藥王菩薩本事品」에서 法華經을 들기만 해도 공덕이 있고 스스로 筆寫하거나 또는 남에게 시켜서 筆寫해도 功德이 있다고 하여 功德主는 사람을 시켜 妙法蓮華經을 寫成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또한 元皇帝 仁宗의 萬年과 潘王(忠宣王)의 福壽無疆과 아울러 當今主인 忠肅王 및 文武百官(僚)의 康寧을 빌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國泰民安을 기원하며 또한 施主한 사람의 복을 빌고 있다. 위의 발원문으로 申當住는 潘王인 忠宣王의 신하로 元에 가서 正二品의 벼슬에 있었으며 그는 潘王을 위해 이 寫經을 제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典瑞院使는 元皇帝나 皇室이 高麗에 대해 實力行事를 할때 使節의 역할을 했으니 「高麗史」 忠惠王世家에 의하면 忠肅王이 傳位할 것을 奏請함에 一七年 二月 壬午朔에 帝가 典瑞院使 阿魯委頭曼台와 客省太史九柱에 명하여 王을 禮貌하게 하고 客省副使七十堅을 보내와 國印을 거두어 갔다는 기록으로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³⁹⁾.

(一〇)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六⁴⁰⁾

大經功德三處廻 向普皆圓滿次以壽

君次以福國三世師親同得解脫或施金銀施

餘財執勞運力見聞喜凡有緣者共增福慧

當成佛果惟願弟子始從今日終至菩提生生世世

在在處處或以香墨或以金銀乃至刺血書寫

此經受持讀廣能利益一切衆如說修行同人
圓通三昧性海即見

毗盧圓滿果海衆生界盡我願乃盡摩訶般若波羅密

時泰定元年甲子十二月 日 寓金生謹誌

弟子道人而幻因講敬寫

이 寫經의 發願文은 임금과 國家의 福을 빌며 三代의 師親이 解脫하
기를 祈願하고 또한 이 經典의 寫成을 위해 金銀泥를 施財한자와 재물
을 희사한자, 그 외에도 모든 有緣者의 福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香墨으로서 혹은 寫書한자들의 福을 함께 받고 있다.

泰定元年(一三二四) 즉 忠肅王一一年에 제작된 작품이다.

發願文은 金生의 글을 지었으며 寫書者는 道人과 幻因이다. 發願文
의 書者는 金生이다.

(一一)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④

〔尾 書〕

大經功德三處廻向普皆圓次以壽

君次福國三世師同得解脫施銀檀那大師演洪永暉爲

首或施金泥或施布物同辨善者執勞運力見聞隨喜共增福

慧當成佛惟願仁誦始從今日終至菩提不做金言求名利但爲教化一切衆
生生生在在處處或以香

墨或以金銀乃刺血書寫生全部讀已能誦

己能持持

經心上即見極樂

阿彌陀佛受記還於六趣遊戲自在如說修行普令衆生未聞者

聞未信者未解者解行同普賢智同文殊同證毗盧圓滿果海衆生界盡我願乃

盡摩訶般若波羅密

時泰定元年甲子八月日

寓金生 謹誌

이 寫經은 泰定元年(一三二五) 忠肅王一一年八月에 寫生한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裏書에

「周經卷第四十 十二下 甲子六月初九日書」

라고 써여져 있는 것을 보면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을 書了한 때는
泰定元年(一三二四) 6月9日임을 알 수 있다.

임금과 나라의 福을 빌고 三世師親의 福을 빌며 함께 解脫하기를 빌

고 있다. 檀那大師(시주한大師) 演洪永暉를 비롯하여 銀을 施主한자 혹
은 金泥 혹은 布物 施主한자와 시주를 권한자 노력을 제공한자의 福이
더하기를 받고 있다. 書者 仁誦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이 寫經을 쓰
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金言(석가의 말씀)이 名利를 구하지 않는 것
처럼 仁誦 역시 菩提心으로 一切衆生의 教化를 목적으로 했다고 발원문

의 書者 金生은 추져 세우고 있다. 또한 이 寫經은 衆生들을 위해 寫成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니 阿彌陀如來의 기록에 대한 강의를 받고

극락을 보게되며 觀自在菩薩과 普賢·文殊菩薩의 修行普令의 실행과 같

이 衆生 중에서 아직 듣지 못한자, 들었으나 믿지 않는자 믿어도 깨치
지 못한자, 깨쳐도 행하지 않는자들을 六趣遊戲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내 願(金生)이 다하도록 摩訶般若波羅密이다 하도록 비로자나불의 圓

滿과 衆生界의 苦海의 결과를 증명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金生이 쓴 發願文의 내용으로서 이 寫經의 性格을 짐작 할 수 있다.

즉 이 寫經은 어느 個人의 福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衆生의 깨우침을

위해 寫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寫經의 一次의 目的이었던 經
典의 廣宣流布라는 의의는 版經의 出現 이후 그 의의를 상실했으므로 二

次의 目的인 功德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衆生을 위한 寫經制作 그 자체에서의 의의^④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一一) 妙法蓮華經卷第一·二·三·四·五·六·七^④

〔尾 書〕

「特爲己身現增福壽當生淨界之願

」

— 3 0 —

倩人敬寫蓮經七卷爾

泰定二年 六月 日誌

上護軍致仕崔 有倫 立願」

寄進銘

「奉寄附若州國富庄羽賀寺 唐本法華經一部七軸

欽其志□仰寺講經讀師公用□無彊帝君久

昌檀信聚崇法論常轉慈尊朝而已

應永廿九年寅壬二月 日 少僧都得號

乘運載船渡密藏教湛故以歲安教迷凡乘

船從果回全名在之

위의 寫經은 그 發願文의 內容으로 봐서 現世의 福壽를 더하고 淨土

界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사람을 시켜 蓮華法華經七卷을 寫成한다는 內

容으로 친저히 個人的인 福壽를 빌어 제작한 작품이라 하겠다.

泰定二年(一三二五) 忠肅王十二年에 前上護軍이었던 崔有倫이 發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上護軍은 上將軍으로(44) 靖宗年에 各領에 護軍一名씩을 두게 하였으

며(45) 또한 國王의 護衛를 맡는 직위로 左大護軍, 右大護軍이 있었으

며(46) 現職이 아닌 文官과 武官에게 蔭官으로 내려질때는 그 品階가 正

三品에 해당 하였다 한다(47).

上護軍과 大護軍은 元으로 보내는 派遣使로서도 큰 역할을 한 듯하다.

「高麗史」에는 崔有倫이란 人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崔有倫과 관련하여 元宗때 부터 忠惠王元年(즉 그의 나이 九三세

가 되던해) 까지 생존해 있었던 崔有滄이란 人物을 잠시 고찰코자 한다.

崔有滄은 將軍出身으로 처음 元宗一一年 蒙古에 賀正 하러 파견된 후(48

忠烈王二三年에는 賀聖節을 위해 파견 당시 그의 官職은 知密直司事였

고(49) 同王二五年 三日庚寅에는 知都僉議司事로서 皇太子의 생일을 축하

하러 파견 되었다(50). 또 同王二六年에는 贊成事로서 元에 다녀왔고 二九

年에도 元으로 파견 되어 갔었다(51). 三一年에는 王이 入元함에 從行하였

고 三二年까지 왕과 함께 元에 있었으며(52) 다시 三三年에 帝의 登極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어 갔다가 三四年 二月에 歸麗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때(53) 그가 上護軍으로 임금을 따라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또한 처음 忠烈王一一年에 王에 발탁되었고 忠肅王때도 계속 政

丞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기록 중 직접 上護軍이란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장군출신의 그가 임금을 수행해서 元으로 갈때

上護軍의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보며, 이 寫經이 寫成되기 삼년전인

忠肅王八年 秋七月 忠宣王이 西蕃의 獨知里에서 崔有滄, 權溥, 許有全,

趙簡등에게 그의 어려움을 글을 부쳐 元皇室에 보냈다는(54) 점등으로 미루

어 볼때 崔有滄의 誤記라는 측면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음

가 생각된다.

變相이 아주 뛰어난 점, 당시 권력가가 아니면 이러한 수준의 紺紙金

泥의 寫經을 寫成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해 본

것이다. 더구나 裏書의 화려한 「上護軍致仕崔有倫」이라는 글씨에서

滄으로 읽을 소지가 없지 않다.

寄進銘에 나타난 應永二九年이라는 年號는 日本의 文明十四年으로 朝

鮮王朝의 成宗一三年(一四八二)에 해당한다.

〔尾 書〕 (一三三) 妙法蓮華經七卷一部(55)

鴻山郡戶長 李臣起

特爲

嚴待義萬壽倒三松先亡聖善足躡九蓮普及

自他現在未來獲福無邊之願寫成銀字蓮經

七軸廣施無窮者

天曆三年庚午 四月 日 臣起誌

同願比丘 正因

天曆三年(一三三〇) 忠肅王一七年 鴻山郡戶長이던 李 臣起에 의해 發

天曆三年(一三三〇) 忠肅王一七年 鴻山郡戶長이던 李 臣起에 의해 發

天曆三年(一三三〇) 忠肅王一七年 鴻山郡戶長이던 李 臣起에 의해 發

願제작된 作品이다.

이 時代에 製作된 다른 作品과 틀리는 發願文 樣式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官等姓名을 기록하던 高麗初期의 寫經發願文 樣式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신하의 禮로 君의 萬壽를 빌고 성인의 善足을 담글하여 九蓮을 보급하고 내담없이 現世와 未來에 복을 얻고 번방이 무사하기를 빌어 이 銀字經七卷을 寫成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一四) 妙法蓮華經八卷本一部⁵⁶

〔尾 書〕

特爲

皇帝萬年

國王宮主福壽無疆國泰民安法界含零同生淨土盡
未來際同作佛淨無一家度然後乃已異見聞十方
施主同起佛種同斯願海

時歲王中二月如六日

棟梁道人

玄哲

同願

法諧

同願中瑞司承吳季儒

鄭氏

士龍

達修

〔寄進銘〕

此經者靜室妙安大姉曾所誦
干妙安禪寺也頃年零落邊境
實爲可惜矣今緣快巖和尚之
請而尋思 國家祈尔要乃

興法施再納于當寺者也

寬文三年二月良辰

枝吉利左衛門順之敬白

위의 發願文으로 볼때 이 法華經八卷本은 玄哲, 法諧 두 僧侶와 中瑞司의 承으로 있던 吳季儒에 의해 발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棟梁道人 玄哲이라는 記錄을 미루어볼때 玄哲과 法諧는 이 法華經八卷本の 寫成의 主管僧侶였음을 알 수 있다. 玄哲이라는 人物은 이 作品 이외에도 日本 親王院소장의 「彌勒下生經」變相圖의 發願文에도 나타나고 있다. 「彌勒下生圖」는 至正十年(一三五〇)에 제작 즉 忠宣王二年이다.

施主者이며 실질적인 發願者라고 볼 수 있는 吳季儒란 人物은 元의 中瑞司에 承의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로 그가 親元系의 실력자였음을 알 수 있다.

「元史」百官志에 의하면

「中瑞司秩, 正三品, 掌奉寶冊, 卿五員, 品, 丞二員, 正四品」이란 기록으로 吳季儒는 寶冊을 奉하는 직무를 장악하는 中瑞司의 丞으로 元의 正四品の 散官에 있던때 이 寫經을 발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吳季儒에 관해서는 또한 「高麗史」世家 忠惠王二年條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閏六月, 己亥, 囚前贊成事吳季儒于行省, 金彥丘, 坐殺人繫獄, 季儒, 受玉帶矯旨釋之」

위의 記錄으로 吳季儒는 忠惠王二年 贊成事로 있을때 玉帶를 받고 金彥丘를 王旨를 假托하여 풀어준 적이 있어 이때에 行省에 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록으로 봐서 吳季儒가 王旨를 假托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방대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中瑞司의 丞으로 있었던 親元세력이었기 때문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高麗史」列傳卷二十二 李穀의 條를 살펴보면

「忠惠王二年奉表如元, 因留居凡六年, 元授中司典簿」란 기록이 있으며

同書列傳卷二十八 李穡條에는

「李穡 字頌叔 贊成事毅之子、生而聰慧、異常、讀書輒誦、年十四、中成均試、已有聲、毅仕元、爲中瑞司典簿、穡以朝子、補國子監生員三年、毅在本國卒、自元奔喪」란 기록이 있다.

李穡의 父인 毅은 六年間 元에 있을적에 中瑞司 典簿로 있었던데 穡을 朝臣의 子라 하여 國子監의 生員에 補했다 한다. 中瑞司의 典簿라 하면 從七品의 散官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吳季儒는 元의 正四品의 散官이었던 承이었으므로 그는 元의 世력을 입고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寫經은 制作年을 단지 歲壬申年으로만 밝히고 있는데, 吳季儒가 生존당시의 壬申年은 忠肅王後元年(一三三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吳季儒란 人物은 忠肅王後元年인 壬申年에 中瑞司의 丞으로 있을적에 이 寫經을 발원하였으므로 元의 世력을 업고 막강한 세력을 부렸으나 九年後인 忠惠王二年(一三四一)에는 收賄 혐의로 실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玄哲은 「彌勒下生圖」를 발원하기 一八年전에 이 사경을 발원 하였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皇帝萬年이 平出되고 있다. 이와같이 皇帝萬年 혹은 皇帝萬歲가 平出되는 경우의 作例가 몇몇 보이는데 이는 대개 親元系의 人物이 발원한 作品들이다. 鄭氏는 吳季儒의 처일 것이고 士龍과 達修는 그의 息子일 것으로 보인다.

(一五)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

〔卷頭書〕

資善大夫將作院使安賽罕

切念荷父母訓育之恩

皇帝

皇太后舍人太子眷遇之德獲事

兩宮位階二品永懷罔極徒感寸誠於

是鑽金寫成

大華嚴經一凡九八十一卷爰伏

佛乘祈

天永年伏願

乾坤比於覆燾日月並於照臨家國咸寧人神均慶

元統二年申戌九月 日誌

〔尾書〕

元統二年申戌九月 日敬書

이 寫經은 卷首에 上記한바와 같은 發願文이 있다.

發願文에 의하면 이 寫經은 資善大夫라는 元의 正二品의 散官으로 將作院의 使로 있던 安賽罕이 元統二年(一三三四) 忠肅王後三年에 發願寫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念을 끊고 父母의 가르침을 받들었다고 하니 安賽罕이란 人物은 僧侶라 생각된다.

將作院使에 관해 「元史」百官志八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將作院秩正二品、掌成造金玉珠翠象寶具冠佩器皿織造刺繡段疋紗羅異樣百色造作、至元三十年、始置院使一員、經歷都事各一員、三十一年增院使二員、元貞元年、又增二員、延祐七年、省院使二員、後定置院使七員正二品、同知二員正三品、同僉二員正四品(下略)」

위의 記錄으로 미루어볼때 元統二年에 이 寫經이 完成되던 해로부터 一四年前인 延祐七年에 正二品의 院使가 七名으로 增員되고 있다. 將作院은 宋의 畫院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工作美術을 관장했던 부서라고 볼 수 있다.

安賽罕은 그가 將作院의 使로 正二品의 資善大夫가 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寫經을 제작하였음을 발원문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寫經發願文中 「皇帝萬年」이나 「皇帝萬歲」라는 記錄은 忠烈王以後 보 통있는 樣式이다. 그러나 여기서 皇太后나 舍人太子의 眷遇之德이라고 특記하고 있어 安賽罕이 皇太后의 총애를 받고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糞竿」이란 이름 역시 「安」이란 의미와 같은 뜻의 몽고어의 한자 표기란 점에서 그가 正二品の 散官을 감사하는 親元系의 人物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上述한바와 같이 「切念荷父母訓育之恩」이라는 記錄으로 그가 僧侶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 寫經의 목적중에는 父母의 음덕을 기리기 위한 것도 크다고 본다.

(一六)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⁵⁹
〔尾 書〕

比丘善之與密直副使任瑞知識雲山同發誓願普集
衆緣以黛紙銀泥倩人書寫

是經三本流通供養以此功德仰願

壬午有永國祚延洪於此善根或捨納財賄或設供養
乃至讚歎隨喜凡有緣者生生世得大自在行普
賢行證如來智盡衆生界一時成佛者

至元二年丙子八月 日誌

功德主祇林寺住持大禪師 善之

前密直副使上護軍任瑞

奉聖寺住持大師 孜西

禪師 雲其

禪師 萬一

緣化比丘 雲山 明一

〔裏 書〕

周經六十、七幅、至元二年五月二十七日 永仏書

위의 尾書發願文과 裏書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寫經은 至元二年(一三三六) 忠肅王後五年 五月에 寫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發願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大功德主는 祇林寺住持인 大禪師 善之로

되어 있다. 前密直副使上護軍 任瑞와 知識雲山과 더불어 여러사람의 시주에 의해 黛紙銀泥의 華嚴經三本(貞元經、普經、周經)을 寫成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寫經은 大功德主가 祇林寺住持인 大禪師 善之로 되어 있으나 施財者이며 실질적인 발원자는 任瑞라 생각된다. 任瑞는 그의 동생이 任伯顔古思였다. 任伯顔古思는 宦者로서 元의 仁宗·英宗때 元에서 활약했던 人物로⁶⁰ 元의 세력을 업고 高麗王室을 잔섭하기도 했던 人物이었다.

任瑞는 그의 동생 任伯顔古思가 伏誅되던 忠肅王十年까지 親元의 세력으로 高麗王室에 압력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던 人物이다⁶⁰.

이 作品은 그가 한창 세력을 가진때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忠肅王年間의 作品임에 불구하고 「皇帝萬年」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壬午」이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善之의 意識의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國家의 安寧을 빌고 또한 이 寫經에 시주한 有緣者들이 大自在菩薩行과 普賢菩薩行을 얻어서 如來의 智識을 증명하고 증생계를 다하고 일시에 成佛者가 되기를 빌고 있다.

奉聖寺住持인 大師孜西가 함께 이 寫經제작에 협조했음을 알 수 있으며 禪師 雲其와 萬一역시 이 寫經제작에 힘을 기울인 人物로 보인다. 裏書로 보아 書者는 永仏임을 알 수 있다.

「是經三本流通供養」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때 祇林寺와 奉聖寺가 이 三本華嚴을 공동공양한 것으로 史料된다.

(一七) 大方廣佛華嚴經三十一⁶¹

〔卷頭書〕

宣授大府少監同知密直司事崔安道

與妻綾城郡夫人具氏同發願銀書

華嚴大藏所願

皇帝萬年下泊三途衆生亡父母離苦得樂

次牙夫婦現增福壽永滅災殃未來

得生蓮華之界見佛聞法悟無生忍

如佛度一切四生之類共證菩提者

至元三年丁丑四月 日化主 皎然

이 寫經은 宣授大府少監同知密直司事崔安道와 그의 妻인 綾城郡夫人 具氏에 의해 發願된 銀書華嚴大藏經중의 한 권임을 알 수 있다.

崔安道라는 人物은 宮婢의 小生이었다. 忠宣王의 內僚로 燕邸에서 王을 섬겼다 한다. 그런만큼 漢語와 蒙語 능통했으며 忠肅王에 이르러서 도여전히 王의 嬖臣이 되었다. 특히 忠肅王一三年 崔安道는 元이 高麗에다 行省을 세우려 할때 극구 반대하는 의견을 변명함으로써 元이 이를 그치게 한일로 贊成事金怡 등과 더불어 일등공신이 되어 土田을 賜해 받게 되었고 父母妻子등도 爵位를 받게 되었다⁶². 또한 同王一四年에도 鷹揚上將軍으로 역시 一等功臣이 되었다⁶³. 鷹揚軍은 一領으로 되었으며 上將軍一人을 두되 正三品이었다. 忠惠王元年 二月에는 監察大夫를 제수받았다⁶⁴.

「高麗史」列傳 崔安道條에는 그가 同知密直司事에 옮겨서 協謀同德功臣號를 賜해 받고 또한 征東行省左右司員外郎을 제수 받았으며 太府太監에 옮겨 詔書를 받들고 高麗로 돌아온 人物이다. 즉 崔安道는 忠宣·忠肅·忠惠 三代를 거치면서 元과 高麗의 세력에 줄타기를 하면서 방자한 권력을 누려온 자였다.

「高麗史」列傳에는 元으로 부터 太府太監을 제수 받았다고 하나, 이 寫經尾書에는 大府少監으로 기록되어 있다. 「高麗史」列傳의 기록으로는 먼저 崔安道가 太府太監이나 同知密直司事를 제수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忠惠王以後인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⁶⁵. 단 至元三年 丁丑 즉 忠肅王後 六年에 太府少監이었다는 것은 확실치 않을 수 있다.

崔安道는 그의 처 綾城郡夫人具氏와 함께 銀泥書로 華嚴大藏을 寫成코자 發願하고 있다. 皇帝萬年을 빌고 先亡한 父母가 苦海에서 벗어나

다음 세상에 樂을 얻은 것을 빌며 夫婦가 現世에서 福壽를 더하고 재앙이 없기를 빌며, 또한 다음 세상에 극락왕생할 것을 빌고 있다.

親元系였던 그는 역시 皇帝萬年을 平出시키고 있다.

(一八)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一⁶⁶

〔恭惟〕

本師所演一大藏經出生之津梁登

涅槃之梯磴一四

句偈功猶巨涯八萬法門德難可

說況華大經諸

教根源輪王嫡子

佛佛出世先說華嚴良以此也是以先寫

此經次成般若

以至諸師先說華嚴良以此也是以

願王上資玄福於

一人下同善慶於萬姓同願施主

各隨所願一一稱遂父母

師長法界含生俱霑利樂者

功德主主兩街都僧國一大師

大禪師

僉議評里致仕

前慶山縣令

妻

化主道人

道人

至元四年戊寅 正月 日誌

이 經典은 至元四年(一三三八) 忠肅王後七年에 제작된 作品이다.

이 寫經의 功德主인 國一大師는 忠肅王이 即位하자 王師 丁午로 하여

金國統을 삼고 國一大師로 하여금 王師를 삼았다. 「高麗史」 기록으로 國一大師가 寶鑑國師混丘임을 알 수 있다. 시호가 寶鑑國師인 混丘는 一〇세에 無爲寺의 禪師인 天鏡에게서 祝髮하고 九山の 禪科에 首席으로 뽑혀 上上科에 올라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普覺國師 一然을 따라 공부하다가 開堂한 人物이다. 忠烈王으로 부터 伽梨法服을 하사(下賜) 받고 大禪師가 되었으며 德陵(忠宣王)으로 부터 兩街都僧統이 되었다. 忠肅王元년에 國王의 命으로 王師가 되었고 數年後에 王師에서 물러남을 王으로 부터 허락 받고 瑩源寺에 居했는데, 이 瑩源寺는 本來 禪院이었던 곳으로 元貞中(元貞은 二년밖에 없었는데 一二九五에서 一二九六까지) 즉 高麗忠肅王九年에 智者宗에 所有되었던 절이었으나 師가 居하므로 다시 禪院이 되었다. 至里二年 冬十月에 感疾에 걸려 松林寺로 옮겼으며 이해 죽었다. 이상과 같은 國一禪師의 一以記로 미루어 볼때 이 寫經의 경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사람의 주목할 人物은 이 寫經이 制作되던 해에 이미 僉議評里職을 致仕한 金延이다. 그에 관해서는 「高麗史」忠烈王二八年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을 찾아 볼 수 있다.

「五月 丙午、殿中侍史、金英位、論海南館別監金延、侵漁百姓、忤旨、貶爲鳳副使」

金延이 海南館別監으로 있던 忠烈王二八年은 元이 別帖木兒等を 派遣 寫經僧을 徵用해 갔던 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金延은 이미 忠烈王 때부터 寫經에 대한 깊은 認識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忠烈王二八(三〇)二년에 이미 海南館別監의 職에 있었으므로 이 寫經이 制作된 忠肅王後七年은 그로부터 三六年後의 일로 그 동안 僉議評里에 까지 官職이 올랐으나 나이가 들어 致仕했지만 施財者로서 충분한 실력을 가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金延이 致仕한 僉議評理에 관해 잠시 살펴보면 「高麗史」百官志에 「評理、穆宗時、有參知政事、文宗、定一人秩從二品、忠烈王元年、改 僉議參理、三十四年、忠宣、改評理、增三人、忠肅王十七年、復改參理、

恭愍王五年、復改知政事、十一年復改僉議評理(下略)」라고 記錄되고 있다. 이 記錄으로 봐서 忠肅王년에 다시 參理로 되돌아 갔으므로 忠肅王後七年에는 당연히 參理이어야 하며 恭愍王一一年에 와서 僉議評理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寫經은 高麗忠肅王後七年 당시의 記錄이고 「高麗史」는 朝鮮時代의 記錄이란 점을 감안할때 이 寫經의 記錄처럼 忠肅王때도 僉議評理가 있었거나 忠烈王三十四年 以前에 그가 이미 僉議平理에 있었을 것으로 史料된다.

發願文의 內容은 本師(國一大師)가 하나의 大藏經의 經路를 講演한바에 의하면 涅槃의 고된 길을 오를제 一四句의 偈하는 功은 八萬法門의 맨 끝이 아니다. 德은 가히 說하기 어려우니 華經은 諸敎의 根源임을 안다 적고 있다. 또 轉輪聖王들의 嫡子가 佛들로 세상에 태어나면 華嚴의 좋은점을 說하고 다음으로 이 蓮華經의 좋은 점을 說한다고 피력하고 먼저 이 經典을 寫成하고 그 다음 般若를 성립시키니, 임금이 玄福을 願해 出資하였고 一人(國一大師)이 같이 善慶하고 이에 萬百姓이 同願하여 施主하니 各者의 所願에 따라 일일이 말하고(稱하다) 한 父母師長이 法界에 舍生하여 利롭고 樂한(즐거운) 것에 충분히 적게 하기를 빌고 있다.

이상의 發願文의 內容으로 이 寫經의 制作에 있어 위로는 王과 아래로 一人(國一大師) 및 百姓들의 施財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兩街都僧統이란 前述한 國一大師混丘가 이미 忠肅王元년에 王師로 冊封되었으면서도 忠宣王에 의해 封해진 兩街都僧統의 僧官을 기록하고 있음은 混丘가 이 일을 그 자신 重視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寫經은 國王이 願해 施財했다고는 하나 國王發願의 寫經이 아니라 「本師」와 「一人」 즉 國一大師를 指稱하는 單語는 平出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高麗史」의 記錄을 살펴보면 忠肅王元년에 「正月 庚寅、王、訪僧萬恒于銀字院」이란 기록이 있어 忠肅王時代에는 銀字院에서 字經이 활발히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의 記錄

中銀寫院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물론 忠烈王 때 銀字院에 관한 기록이 없고 金字院에 관한 기록만 보이지만 實際 遺存되고 있는 作品은 銀字寫經이 단연 우세하다⁷⁰⁾. 이처럼 銀字院이 寫經制作을 활발히 행했다는 점과 이 寫經이 王師混丘가 發願하고 王이 施財했다는 점으로 銀字院에서 만들어진 作品이라 여겨진다.

(十九) 妙法蓮華經一部六卷(第四卷缺本)

〔裏書〕

發願偈

妙法蓮華勝經典

金泥成願不淺

願此一部七大卷

諸佛會中隨佛現

證明諸佛無礙辯

開示衆生佛知見

發願息影沙門 淵鑑

施財

重大匡劉成吉

掌合朱 暉

監門衛錄事朴 中漸

幹事

道者、戒禪、師憚 克倫

至元六年庚辰六月日 柏巖 聰古書

〔寄進銘〕

奉寄進 天滿宮

金字妙法蓮華經一部七卷

右爲現瑞二世所願成就乃

至法界有情同圓種智者

正平十二年歲次臘丁酉月二十五日

從五位上行前大宰少貳兼築後守勝原朝臣賴尙敬白

〔再施入銘〕

此緒者淨室妙安大姉曾所納于

龍泰禪寺也頃與零落邊境寬

爲可惜矣今緣活校和尚之請而

尋思 國官禱爾之要乃與法施

兩奉納于平安山者也

寬文三年十二月良辰

枝吉利左衛門順之敬白

法名泰譽宗徹居士

이 寫經은 至元六年(一三四〇) 忠惠王元년에 寫成된 作品이다. 發願者는 淵鑑이며 施財는 重大匡劉成吉과 朱暉、監門衛錄事朴中漸으로 되어 있다.

이들 施財者중 重大匡인 劉成吉 監門衛錄事 朴中漸이 官職이 적혀 있어 주목 되는 人物이다.

重大匡은 太祖時 泰封의 제도에 따라 행해졌던 官階였으나⁷¹⁾ 成宗 때 官階가 고쳐짐에 따라 없어졌다가⁷²⁾ 忠宣王 때 官制가 또다시 고쳐짐으로써 다시 從二品의 벼슬로 부활하게 되었다⁷³⁾. 劉成吉이 어떤 人物인지는 알 수 없으나 從一品의 상당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朴中漸 역시, 그 個別的인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으나 監門衛⁷⁴⁾의 錄事였다. 文人으로 監門衛의 內識에 파견되어 있었던만큼 金字寫經 寫成에 施財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六衛에는 散員·錄事二명씩을 두고 있었는데 散員이 正八品이었으므로 錄事 역시 八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幹事를 맡았던 道者、戒禪、師憚、克倫은 어떠한 人物들이었는지 알

수 없고, 書者였던 柏巖이나 聰古에 관해서도 알 수 없다.

發願文의 내용은 妙法蓮華經典을 金泥로 寫成하고자 하는 願文이 가
법치 않아 이 妙法蓮華經一部七卷을 발원하게 되었으니, 諸佛會中에 佛
의 현신함에 따라 諸佛을 증명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衆生 앞에 나타나
佛을 보고 알게 하라는 내용으로 순수한 佛心으로 이 사경을 寫成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二〇) 佛說阿彌陀經⁸²

〔尾書〕

比丘聰古

特爲

慈親寫此

阿彌陀經一部以定福壽於

三寶光中吉祥如意者

至正元年五月 日

특히 慈親을 위해 이 阿彌陀經一部를 寫成하며 福과 壽를 定하고자
하며 三寶光중에 吉祥如意者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發願文으로
書者는 앞의(一七)의 寫經인 「妙法蓮華經」一部의 書者인 聰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記錄으로 미루어 볼때 聰古는 比丘 聰古로만 기록되고 있지만
(一七)의 예와 더불어 생각 할때 그는 寫經僧임이 틀림없다. 至正元年
(一三四一) 忠惠王二年의 作品이다.

(二一) 妙法蓮華經(燒經)⁸³

〔尾書〕

大元至正五軍乙酉九月 日

無住庵沙門 天雲誌

〔朱方印〕「朱方印」

至正五年(一三四五) 忠穆王元年에 제작된 作品이며 一定한 사찰에 적
을 두고 있지 않았던 天雲이란 승려에 의해 勤誌되었음을 알 수 있다.

(二二)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⁸⁴

〔尾書〕

至正十年庚寅二月 日誌

施主延安部夫人李氏 慈行敬愛

亡禍司鄉 金碩

亡母 秦氏

亡父宰日 李 思濫

이 寫經은 至正十年(一三五〇) 二月 忠定王二年 延安郡夫人李氏의 發
願으로 寫成되었다. 延安郡夫人 李氏는 죽은 남편의 官職을 司鄉이라
밝히고 있어 金碩이 閹人(내시)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列傳卷第三十五의 宦者條에 의하면

「高麗閹人、其本系、非眠則賤隸也、高麗、不用腐刑、在襪裸、爲狗所
啗者、皆足、然但備宮闈永巷之任而已、不得拜祭官、其慮深遠矣、(中略)
齋國公主、嘗獻數人於世祖、頗得執侍閨闈、出納帑藏、有奉詔來使、復其
家、官其族、恩寵至厚、殘忍僥倖之徒、轉相慕效、父宮其子、兄宮其弟、
又其強暴者、小有憤怒、輒自割勢、不數十年間、刀鋸之輩、甚多、元政漸
紊、閹人用事、此輩、或官大司徒者、遙授平章政事者、其次、皆爲院使司
鄉(下略)」

이라고 적고 있으니 金碩 역시 이러한 내시들 중에서 상당한 실력을 가
졌던 財力家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史料된다.

亡母 秦氏와 亡父 李 思濫은 延安李氏의 친정 부모이었을 것이라 생
각된다.

(二三) 金剛般若波羅密經⁵⁵

〔尾 書〕

以此功德普皆廻向

上報四恩下濟三有早明般若續佛慧命利樂有情和南謹和

至正十一年辛卯十月 日誌

施主通議大夫肅政兼訪使月城府院君崔潛

宣授東陵郡夫人金氏

至正十一年(一三五二) 忠定王三年에 제작된 이 寫經은 通議大夫肅政兼訪使月城府院君인 崔潛의 施主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通議大夫는 「高麗史」百官誌의 文散階에 의하면 忠烈王元年의 官制改正 때 從三品の 散階였으나 同王三四年의 改正 때 없어졌다가 恭愍王五年의 改正 때 비로소 다시 부활하여 正三品下가 되었다. 그러므로 施財者인 崔潛은 이 寫經을 제작하던 忠定王三年 正三品下의 位階에 있었다.

「高麗史」忠肅王世家에 의하면 崔潛은 同王一四年에 贊成事로서 二等功臣이 되었던 人物로서 이듬해인 同王一五年 評理가 되었다 한다.

發願文의 내용은 寫經의 功德을 두루 모두에게 돌리며 위로 四恩에 報답하고 아래로 三有를 구제하여 일찌기 般若를 밝히며 佛의 智慧를 잃어 命利하고 樂有情하기를 합장축원하며 謹和한다는 내용이다.

(二四) 妙法蓮華經卷第七⁵⁶

〔尾 書〕

竊聞讀誦受持解說書寫流通五種饒益一

般弟子迺湊懇於真詮因倩人而敬寫茲有

爲微善即無上勝功普徧嚴悉皆霑聞

伏願茫茫三有蠢蠢四生頓悟一乘國宗永

盡多生妄惑如窮子傳家業而信知本有

若醉客得衣珠而勿向他求不借化城直
躋寶所伏願弟子飽喰王膳圓領佛懷信

依正皆是妙經體色杳無非中道淨六根

而隨意通經誓等法師功德離五障而轉

身成佛願同龍女機緣自從現在時窮益

盡未來之際生生供養在在弘揚者

至正十三年癸巳八月 日誌

○○正順大夫肅雍府右司尹朴允珪

施主 金成

奉寄進妙法華院常住

施主形角甄

至正(一三五三) 恭愍王二年에 寫成된 作品이다. 正順大夫肅雍府右司尹

朴允珪와 金成의 시주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朴允珪는 이

寫經을 發願施主한 당시 正順大夫로서 肅雍府右司尹이였음을 알 수 있

다. 肅雍府에 관해서 「高麗史」恭愍王世家를 살펴보면 元年 二月條에

「甲申, 改大妃德慶府, 曰文睿, 置公主府, 曰肅雍」이라는 기록이 있어

肅雍府는 公主(魯國大長公主)를 위한 官屬이었다. 朴允珪는 바로 이

肅雍府의 右司尹의 직에 있었으며 文散階는 正順大夫로 正三品上이었다.

발원문의 내용은 五種의 經典을 寫書하여 一般弟子들에게 진리를 설

명코자 사람을 시켜 이 經典을 寫成한다는 내용과 茫茫三有와 蠢蠢四生

에게 깨달음을 갖게 하여 一乘하러 한다는 것과 宗室의 永盡과 多生의

妄惑함이 窮子가 家業을 잇는것 같이 根本을 알아서 믿게하고 醉客이

衣珠를 얻는것과 같이 다른것을 바라지 않게하여 化城을 빌리지 아니하

고 바로 寶所에 오르게 하기를 빌고 있다. 伏願弟子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기를 빌며 또한 이 妙法蓮華經의 율바름에 의해 모두가

佛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며, 一體의 色의 그윽함이 中道아닌

것이 없으니 六根을 깨닫기 하고 經을 통달하고자 하는 뜻에 따르고자

한다. 誓等法師功德이 다섯의 장애를 이탈하여 轉身成佛하니 원컨데 龍

女機緣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에서 무궁토록 그 이로운 끝까지 오기를 빌고 있다.

日本에 寄進한 人物은 形部角甄이다.

(二五) 首楞嚴經卷十⁹⁸

〔尾書〕

功德花嚴海印住持大師信聰

至正十六年正月 日 星山前直講 李邦翰爲亡母李氏

〔裏書〕

菩薩本行經卷下 第十七丈覆

至正十六年(一三五六) 恭愍王五年에 만든 것이다.

功德主는 海印寺住持였던 信聰이며 실제적인 發願者는 李邦翰이란 것을 알 수 있으니 星山李氏였던 李邦翰은 成均館의 直講으로 있었던 人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直講은 忠宣王의 改制以前까지는 丞이라 칭하던 것을 이렇게 고쳤으며⁹⁹ 恭愍王 때 直講은 從五品이었다. 그러나 前直講이므로 그가 直講일 때는 從三品이었을 것으로 본다⁹⁹. 그러므로 그도 상당한 位階의 人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二六) 大方廣圓覺修多羅三議經(前面)⁹⁹

六祖法寶壇經序

前面은 圓覺修多羅三議經의 발원문과 無生法戒의 발원문 두개가 실려 있다.

〔圓覺修多羅三議經尾書〕

將比成功德圓滿上報佛祖之恩下濟三塗之苦

端爲

祝延 當今主上壽萬歲 公主 王后壽齊年十方檀信增福壽風調雨順

國泰民安

佛日增輝法輪常轉者

至正丁酉潤九月 日誌

持經主 戒桁

施主崔迪一莊

同願金清戒心

〔文殊上乘生戒法尾書〕

生悉皆爲我同登正等覺 四最上乘無生戒

衆善不條具前如法精持一歷耳根皆證菩提永作舟航

同出迷津濟登覺岸如斯勝利祝延

皇帝聖壽萬歲

太子諸王壽等千秋

皇皇后皇妃金投永茂

國王殿下福壽無疆 文武官僚高辻祿位天下之太平

風調雨順國泰民安

佛日增輝法輪常轉者

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

禪師 指空

裏面에는 「六祖法寶壇經序」가 寫書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尾書가 있다.

〔尾書〕

古筠比丘 德異撰

三寶普利郡生者

六祖禪師法寶壇經

이 經典은 至正丁酉(一三五七) 恭愍王六年에 崔迪一家의 施財로 寫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功德主는 戒桁이며 金清戒心도 함께 施財했음을 알 수 있다.

「了義經」의 發願文은 장차 이 經典의 寫成의 功德圓滿이 위로는 佛祖의 恩惠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三塗의 苦를 제도하기를 일며 특히 當今土上の 壽가 萬歲도록 무강하기를 축연하며 公主와 王后에게도 같은 壽를 주기를 빌며 十方檀信의 福壽를 더하고 風調雨順하고 國泰民安하기를 빌며 佛日이 法輪常轉者에게 더욱 빛나기를 빌다는 내용이다.

「文殊上乘無生戒法尾書」의 發願文은 元皇帝의 壽가 萬年할 것과 太子와 元의 諸王들의 壽를 빌고 皇后皇妃의 金投로 永茂하기를 빌고 다음 王殿下의 福壽無疆과 文武百僚의 祿位가 더욱 높아지기를 빌며 風調雨順으로 國泰民安하기를 기원하고 佛日이 法輪常轉者에게 더욱 빛나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釋迦如來의 遺教을 弟子에게 傳授하는 西天禪師 指空의 戒法에 一乘하기를 빌다는 내용이다.

指空禪師에 관한 記錄은 宣光八年(一三七八)의 李穡에 의해 지어진 「西天提納簿陀尊者浮圖銘」에 의하면 指空은 迦葉尊者로 부터 一〇八代인 印度의 僧이다. 印度말갈타國의 藩王의 第三王子로 태어나 八세에 那蘭陀寺의 律賢에게서 처음 講을 듣고 剃髮受戒했다. 一九세 때 南印度의 楞伽國(錫蘭島)吉祥山の 普明을 만나 衣鉢을 얻어 중국으로 와서 燕京에 이르렀으며 天曆初(一三二八)에는 金剛山の 法起道場을 예배, 七月에 延福亭에 戒를 설하고 곧 燕都로 돌아갔다. 至正二年(一三四二) 忠宣王三年 遺化方丈에서 죽었다. 洪武元年(一三六八) 恭愍王一六年 茶毘, 大司徒達散가 遺骨을 들고 高麗에 왔고 壬子年(一三七二)에는 楊州 檜巖寺에 부도를 세웠다고 한다. 檜巖寺에 부도를 세우기 전 指空의 遺骨은 王輪寺에 있었다는 것을 「高麗史」恭愍王世家에 의해 알 수 있다.

「十九年, 正月甲寅, 幸王輪寺, 觀佛齒, 及胡僧指空頭骨, 親自頂戴, 逐迎入禁中。」위의 기록으로 洪武元年인 一三六八年(恭愍王一七年)에 遺骨을 高麗로 가져와서 一三七二年인 壬子年에 檜巖寺 부도가 완성될 때까지 그 遺骨이 王輪寺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寫經은 아직 指空의 遺骨을 高麗로 들어오기 전에 寫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指空은 禪覺王師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⁵⁾ 이 發願文과 關連하여 金剛山「檜帖寺」「懶翁和尚受戒圖」로 소개된 戒圖에 發願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皇太子殿下

皇后皇妃金投宗茂

國王殿下福壽無疆文武百

官察高迁緣位天下太平

風調雨順國泰民安

佛日增日輝法華常轉者

泰定四年二月 日牒

付弟子懷發慧勤

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

西天禪師指空

忠肅王十四(一三三七)에 제작된 이 發願文은 同寫經中 文殊上乘無生

戒法에 記錄되고 있는 尾書와 똑같은 內容이다.

美術史쪽에서는 懶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僧 慧勤은 李穡이 撰

한 「檜巖寺禪覺王師碑」 記錄에서는 至元四年(一三四四)에 檜巖寺에서 作

신하여 四年後인 戊子年(一三四八)에 燕京에 가서 指空에게 參問했다고

하니 이 發願中의 「指空」이란 이미 세상에 소개된 것처럼 指空의 筆跡

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檜帖寺의 「受戒圖」란 畫題는 그런 의미에서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牒은 泰定四年 僧慧勤이 金剛山 檜帖寺에 있을 때 發願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如來의 遺教을 傳授한 弟子指空과 一乘하기를 빌어 發願한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泰定四年은 指空이 金剛山 檜帖寺에서 法起道場을 設하기 일년전에

해당하므로 이때 慧勤이 指空을 詔致코자 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더

구나 慧勤은 後日 恭愍王二〇年에 王師가 되자 그 이듬해 檜巖寺를 크

게 증진하였고 指空의 浮屠를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寫經發願文과 牒의 發願文의 樣式이 같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 寫經이 制作된 일년후에 慧勤이 還國했다는 점에서 이 寫經이 慧勤의 直接發願한 作品은 아니라고 본다.

(二七) 金剛般若波羅密多經

〔尾書〕

唵 烏倫尼 沙婆訶

補闕 眞言

唵 呼嚧呼嚧 社野穆契 沙婆訶

至正二十七年丁未 三月 日誌

施主奉善大夫前興威衛精勇護軍朴光美

吹火郡夫人林氏

至正二十七年(一三六七) 恭愍王一六年에 奉善大夫이며 前興威衛精勇의 護軍인 朴光美와 그의 妻인 吹火郡夫人林氏에 의해 施財되어 寫成된 作品이다.

「高麗史」百官志文散階條에 의하면 恭愍王一一年의 官職의 改正때 奉善大夫는 從四品이다. 그는 또한 興威衛의 精勇護軍을 지낸바 있다. 興威衛는 「高麗史」百官志 西班條에 의하면

「興威衛、保勝七領、精勇五領、衛、置上將軍一人、正三品、大將軍一人、從三品、每領置將軍各一人、正四品」

이라는 記錄이 있어 朴光美는 前護軍이었을때 正四品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寫經을 제작할 당시 奉善大夫이므로 從四品으로 그 位階가 맞지 않으나 그가 護軍이었을 때 正四品의 護軍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나, 恭愍王때 西班의 位階도 「高麗史」百官志의 記錄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二八) 妙法蓮華經七卷本一部

〔尾書〕

本經以銀爲寫口在

蓮座白業更明口手位頭已成

佛道矧及傾索口此殊因廣

見聞并暫隨喜各從窮子至德

家珍當受

一兩勻霑桑大牛車同臻寶

恩四下賞有三兵穀登

法輪常轉

洪武癸丑四月 四日敬誌

奉尙大夫知沃州事許七靖

同安東郡夫人 權氏

勸喜施主優婆夷 權氏

이 寫經은 洪武癸丑(六年) 一三七三年인 恭愍王二二年에 제작된 作品이다. 「高麗史」百官志 文散階에 의하면 恭愍王一一年 官制의 改正때 正四品을 奉尙大夫라 했다. 恭愍王一八年 官制의 改正때는 正四品의 上은 中散大夫라 칭하고 下는 中議大夫라 칭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恭愍王二二년에 제작된 이 寫經에 나타나고 있는 奉尙大夫라는 位階가 「高麗史」百官志의 文散階條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發願者인 許七靖이 자신이 처음 位階를 받았던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恭愍王때 官制의 변화가 심하고 복잡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知沃州事」에 관해 살펴보면, 「高麗史」地理志 管城縣條에 管城縣은 仁宗二二년에 縣令을 두었으나, 明宗二二年 吏民이 縣令 洪彦을 잡아서 幽閉시킨 사건으로 官號가 削除 되었다. 그 후 忠宣

王五年에 知沃州事로 승격되게 되었다고 한다.

安東郡夫人 權氏는 功德主인 許七靖의 妻로 보이며 勤喜施主 優婆夷는 장차 비구니가 되기 위해 즐겁게 시주하는 勤行 優婆夷라는 의미로 해석되나 이 역시 許七靖의 妻族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發願文의 내용은 현상대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妙法蓮華經一部를 紺紙銀泥로 寫成함으로 窮子가 德家에 이르러 珍奇함을 얻듯이 하여 줄것과 三邊에 兵火가 없고 오곡이 풍성하기를 빌고 있다.

〔二九〕 妙法蓮華經七卷本一部⁹⁸

〔尾書〕

特爲

先妃鐵城郡夫人 李氏靈魂超生 極樂世界面奉

彌陀親受記 別證一切智又願夫重大匡 晉城郡河氏寶體延壽寶安

當生淨土請佛 保主法德蘭敬寫妙法蓮華經一部流通永祀作法供養福資 恩有子

宣光七年丁巳十一月 日供養主前斷俗大禪師元珪

朱書로

嘉吉三年 二月 日奉籠

木敢堯海

松尾大明神西酉慶大院 僧 正敬白

〔宣光〕이라는 年號는 北元의 年號로 元이 北으로 밀려간 후 使用한 年號이다. 宣光七年丁巳(一三七七)은 禩王三年에 해당한다.

이 寫經은 죽은 妻, 鐵城郡夫人 李氏의 極樂世界의 面奉을 위해 그의 夫人 晉城郡河氏가 발원한 寫經이다. 晉城郡 河氏는 重大匡을 지낸 人物이다. 그러나 實際供養主는 前斷俗寺大禪師 元珪다. 이 寫經은 바로 僧元珪가 사망한 그의 母와 살아있는 그의 父인 河氏 즉 河允源의 壽福을 빌어 제작한 사경이다. 이와 관련하여 「高麗史」列傳의 河允源條를 살펴보면 「河允源 晉州人, 父楫贊成事致仕封禩晉州郡卒子, 僧元珪, 火葬諡元正, 允

源忠惠未, 登第補典校校勘, 恭愍朝以典摠郎, 從諸將克復京城第功爲二等, 嘗出按慶尙西海楊廣交州四道, 牧原尙二州所至有聲績辛旽用事, 允源不諂附, 辛旽初擢拌大司憲 封晉山君(下略)」이라는 記錄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願夫 河氏는 元珪의 父인 晉城郡 河氏 즉 河允源을 지칭하고 있다.

죽은 妻를 위해 河允源이 발원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의 아들이며 晉州에 있는 前斷俗寺住持였던 元珪가 실질적인 발원자임을 알 수 있다.

〔三〇〕 妙法蓮華經卷第七⁹⁹

〔尾書〕

洪武十九年庚寅五月 日

羣等爲銀書此寫法華經一部端爲奉祝

聖壽萬歲, 君妃齋年儲宮鞏固, 文武威寧風調

雨順國泰民安, 禾穀豐稔干戈戢息, 次祈我等與同願檀那, 今世同證福壽,

後生皆證菩提, 祖考諸靈超生淨界一切有情俱丞妙刹云。

施主 竹山郡夫人金氏

同願 貞淑宅主宋氏

同願 前奉翊大夫禮判書 申允恭

化主 覺普 石室雲柄 覺書

이 寫經은 洪武一九年(一三八六) 禩王一四年에 제작된 作品으로 大施主者는 竹山郡夫人金氏와 貞淑宅主 宋氏와 前奉翊大夫의 散階로 禮判書였던 申允恭임을 알 수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이 法華經一部가 여러사람에 의해 銀書되었으니 특히 聖壽萬歲를 奉祝하고 君妃의 壽가 또한 그와같기를 빌며 儲宮(황태자)가 굳건하고 文武百僚가 다 편안하며 오곡이 풍성하고 兵戈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다음 발원자와 이를 함께 찬동하여 시주한 자들의 今世의 福壽를 증명하고 後生에 모두 菩提를 증명하도록 하며 선조

들이 윤회에서 벗어나淨界에 태어나기를 빌며 일체의有情한 것에 두루妙刹을 갖추어 지기를 빌고 있다.

竹山夫人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貞淑宅主는 宮中の 女屬이었다고 보여진다. 奉翊大夫는 「高麗史」百官志 文散階에 의하면 恭愍二一年 이후 從二品이었으며 禮曹에는 判書가 一名으로 역시 從二品이었다. 申允恭은 상당한 실력자로서 金氏부인이나 貞淑宅主는 그의 친족인 듯하다. 이 發願文 樣式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制作年月日이 맨 앞에 쓰여진 점이라 할 수 있다.

(三二) 妙法蓮華經

〔尾 書〕

洪武六年十一月 日敬書

一念與慈郡生權利

佛不妄語世所共知我

亡耦仁德恭明慈睿宣安敬順昌禧嚴正統

和神慧嘉寧貞淑寬柔章憲元試淵靜

舍弘信敏齊壯承義顯文厚載簡能克

配善孝內襄密賈濟難重

王太后徽懿魯國大長公主以功以德如生如存故

厥追修靡有遺憾得此妙經以金書之每於

忌且披讀此即於塵墨劫作法供養耳

이 寫經發願文은 「朝鮮古蹟圖解七」에 실려 있으나 現在國立中央博物館에서는 調査가 不可能하여 確認할 수 없었다. 「朝鮮古蹟圖解」의 寫眞을 通해 發願文의 판독이 可能했으므로 여기에 소개코자 한다.

洪武六年(一三七三) 恭愍王二二年十一月에 寫成된 것이다. 洪武의 武는 缺劃되어 正로 쓰여져 있다.

「佛의 五戒인 不忘語는 세상 모두가 함께 나에게 알게 한바」라고 전제하고 恭愍王의 愛妃였던 徽懿魯國大長公主의 시호 그 다음에 적혀 있다.

시호의 내용은 亡耦이하로부터 王太后徽懿魯國大長公主의 앞부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 시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죽은 배우자인 魯國大長公主는 仁和德을 공손히 밝히며, 자비로운 察智(佛法)으로서 아름답고 편안하게 하도록 함을 전제로 하고, 또한 「佛은 세상이 나를 안다고 妄語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있어 이 寫經의 寫成이 功德과 佛敎의 廣宣流布라는 一般的인 寫經의 使命과 役割을 일단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寫經發願文의 本格的內容은 그 다음부터라고 하겠다. 그內容을 살펴보면 죽은 配耦者에 關해 적고 있는데, 그 죽은 配耦者는 仁和德을 공손히 밝히며, 慈悲로운 察智(佛法)로서 했으며, 順從하여 따라서 昌禧했고 엄중 정직 했으나, 和合으로 統率했고 神秘로운 智慧로서 아름답고 편안하게 했으며, 貞淑하면서 너그럽고 柔順했고 規則을 잘 지켰으며, 信義와 민첩함이 다같이 壯하였다. 義에 따라 글을 表現했으며 글을 많이 신지만 간결함에 能했다. 配耦者에게 잘 했고 孝를 잘 행했으나 內密하게 했으며 주는 데 인색하지 않았던 王太后徽懿魯國大長公主이다. 이 公主가 功과 德으로서 生存을 같이 했던 故로 그 追憶을 닦고 쓸어 내어도 貴憾이 있어 金泥로서 쓴 이 妙經을 얻어서 每忌日 아침 퍼서 읽고 이것을 오랜 세월에 걸쳐 佛法이 되게 하여 供養할 뿐이다.

이상과 같이 亡耦徽懿魯國大長公主에게로 向하는 애끓는 心情을 吐露하고 있는 이 發願文은 愛后를 잃은 恭愍王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發願文中 「此部」라는 表現으로 恭愍王은 魯國大長公主를 爲해 妙法蓮華經一部를 寫成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每於忌且披讀此於塵墨劫作法供養耳」로서 이 寫經은 恭愍王이 魯國大長公主의 忌日 아침마다 써서 寫成한 作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妙法蓮華經殘卷은 恭愍王筆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三二) 妙法蓮華經卷第一과 卷第六

〔尾 書〕

洪武二十一年 戊辰四月 日寫成
施主 奉翊大夫典工判書 盧 有麟
이라고 적혀 있다.

洪武二年 禡王一四年에 제작된 作品으로 奉翊大夫의 散階인 從二品으로 工曹判書였던 盧有麟의 施主에 의해 寫成된 作品이다.

(三三)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尾 書〕

右華嚴法華諸佛本宗萬法根柢然其是
法以智立體以行成德過去如來皆修普
賢廣大行願成就萬德普度郡生未來學
者當修是行頓超三界得無生忍釋禱順高山
敬恭華嚴普賢行願結同萬人皆證深入
解脫境界特成大寶蓮經七軸及造彌勒上下
生經以廣流通判書姜遇春及與四寺
有緣檀那信而其事共助以財者甚衆其錄
于后嗚呼一乘大願在於經乎在於心乎
行人無忽休伏祈

聖壽萬歲

君壽千秋都民咸樂洪武二十二年庚午三月 日高山拜題

洪武二年(一三八九) 恭讓王元年에 제작된 작품이다.

발원문의 양식이 종전것과는 틀린다. 먼저 寫成年月 日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發願에 관한 기록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聖壽萬歲와 임님의 壽를 빌고 있다.

이 발원문으로 僧禱順과 高山에 의해 발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華嚴經과 法華經의 佛書의 萬本の 근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華嚴經典과 普賢行願品 이외에도 法華經七卷本一部와 彌勒上下生經을 만들어 流通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經典을 寫成키 위해 判書姜 遇春과 四寺의 有緣者들이 시주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三四) 地藏菩薩本願經卷中

〔尾 書〕 墨書로 文帝

李迪水

地藏菩薩本願經中

大施主 金具孝兩主

大施主 李活兩主

景重山

金斤

吾存

洪仲道

金致用

崔貴同

薛春守

全奉

金繼夏

田內隱同

金得尙

金吾尔知

金得非

李甘末

高仁守

李悟

李未同

車寶

金仲夫

林仲夫

方春萬

公後山

楊生

宣自義

姜乃春

黃元萬

趙仲守

覺招

禮儿明

義惠

懿希

只每

池八同

李後實

者斤何只

金性木

張山守

毛老只

修今

於○云 子長守

金性卜 社會井山 貴德

洪乃明 乃修 者々知

金吾柔 尙悟 劉巨金

東無京 卍庇 石非

東得林 崔戒南 莫懷只

姜自德 金石孫 哲非獅子

趙五龍 夫貴 金生靈如

者斤非 夫貴 金漢

欣加伊

韓永孫

朴陽守

劉有敬

金守剛

이 寫經은

中卷이라 寫成年代나 發願文은 보이지 않는다.

大施主는 金具孝兩主와 李浩兩主로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도 七七名

의 施主者들의 이름이 골고루 적혀있다.

文帝나 季迪水는 寫書者가 아닌가 史料된다.

(三五) 妙法聖念處經

〔尾 書〕

至元二十二年乙酉歲高麗國

國王宮主特爲

皇帝萬年四海和平法界生立共證

菩提發願寫成金字大藏

式目錄事大盈署令金必爲書

이 寫經은 直接 調査한바 없으나, 日本九州大學部의 菊竹淳一助教授가 中共의 天津博物館에 전시된 작품을 尾書만을 記錄해 와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寫經은 尾書로 보아 高麗國王과 宮主의 發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寫書者는 式目圖鑑의 錄事로서 大盈署의 令으로 있던 金必爲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金必爲는 「高麗史」列傳의 吳潛條에 그 이름이 보인다. 권리가었던 吳潛과의 불화로 거리에서 그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기록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가의 미움의 대상이 될만큼 그는 권력의 측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式目圖鑑은 文宗때 制定되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종의 입법기관이었으므로 이러한 式目圖鑑의 錄事였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자 혹은 왕의 신망을 받는 자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式目圖鑑은 文宗때 制定되었으며, 使二人을 두어 省宰로 하고 副使四人을 두어 正三品 이상으로 하고 判書六人을 두어 五品 이상으로 하고 錄事八人을 두어 甲科權務로 하였다. 이 式目圖鑑은 忠宣王二年에 다시 국가의 중대사를 맡는 곳이라 하여 僉議政丞, 判三司事, 密直使, 中樞院使등으로 判事를 삼고 知密直이하로서 使를 삼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대사를 결정하는 일종의 입법기관이었다.

大盈署는 「高麗史」에 의하면 文宗때 制定되었고 令이 一人으로서 從七品이며, 丞은 二人으로서 그 品階를 알 수 없다고 「高麗史」는 적고 있다. 吏屬은 史가 三人 記官이 二人 算士 一人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書者 金必爲는 式目圖鑑의 錄事로 있으며 大盈署의 令으로 從七品으로 있던 人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忠烈王과 그의 蒙人妃였던 莊穆王后의 發願으로 된 이 寫經은 「佛說雜藏經」과 더불어 高麗國王 宮主發願의 作品으로 주목되어 진다.

高麗國王發願寫經이 一行 十四字인데 비해 이들 國王·宮主發願寫經은 一行 十七字라는 점도 주목 되는 점이다.

三、結 語

이상과 같이 三五點의 발원문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먼저 그 양식적인 변화라는 특징을 들 수 있다.

현존하는 遺品中에서 初期作品에 해당하는 「佛說彌勒成佛經」이나 「大般若波羅密多經」一七五는 그 書式이 高麗初期의 版本樣式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즉 發願者의 官職과 성명이 기록되고 그 다음 「聖壽天長」 혹은 君主萬壽등을 기록하면서 發願의 내용을 적고 있다. 이러한 樣式은 高麗大藏經의 典形的인 樣式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高麗寫經의 發願文 樣式은 蒙古의 支配下에 들어가면서 바뀌어지고 있다. 「特爲」 「伏爲」로 시작하여 「皇帝萬年」 「皇帝萬歲」를 빌고 그 다음으로 「國王千秋」 「혹은」 「國王 宮主萬歲」를 빌며 그 다음 發願의 내용을 적고 寫成年月日과 發願者나 施主者의 官職과 성명이 맨 뒤로 돌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元支配下의 高麗寫經樣式은 元의 폐망과 더불어 다시 한번 그 樣式的인 변화를 나타내게 되니 洪武一九年과 二二년에 制作된 作品이 바로 그러한 例의 作品이라 하겠다. 즉 다시 聖壽萬年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즉 高麗前期의 樣式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寫經이 制作된 장소라는 점에서 發願文의 資料的 價値란 점을 들 수 있다. 즉 發願文의 (五)의 경우는 「傳人家中敬寫成」이란 記錄으로 볼 때 사람을 시켜 그의 집에서 寫成하였다는 것이 된다. 즉 功德主인 安節의 집에서 寫書했다는 것이 된다. 또한 (五)의 경우는 廉丞益이 金字院으로 내놓았던 그의 집에서 바로 (十五)의 寫經을 제작했을 것이라는 점을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十九·二十) (二四) (二八)의 경우의 경우도 傳人寫成했음을 밝히고 있으나 어디서 寫成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二六) 등과 같이 功德主가 僧侶가 되고 실질적인 發願者이라고 볼 수 있는 施財者가 同願人이나 아니면 施財者로 기록되고 있

는 경우도 상당수 되고 있다. 이들 寫經들이 과연 어디서 寫成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찰에서 거의 制作되었을 것으로 보며 계층에는 廉丞益 發願의 사경처럼 金字院이나 銀字院에서 寫成된 것도 전연 없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十九·二十)의 경우와 같이 大功德主가 申當住로서 潘王인 忠宣王을 위해 寫成한 作品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三)을 妙法蓮華經을 寫成코자 하는 열망으로 이것이 제작되었다는 발원문으로 이것은 金字院의 작품이 아닌가 思料된다. 또한 (二)·(二)·(三)도 銀字院의 作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個人的인 福樂을 빌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三十)은 銀字院의 作品이라 할지라도 國一禪師가 王師가 된 후에 발원한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個人發願文에 功德主 혹은 施財者로서 나타나고 있는 人物에 관해 정리해 보면 寫經을 발원하거나 혹은 寫經發願에 施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階層이 시대별로 명료하게 들어난다고 할 수 있겠다. 高麗初에는 아직도 戶長세력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寫經의 發願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一)의 경우로 충분히 알 수 있다. (三)의 경우는 文宗 때 太子左監門率府의 率로 있던 장군의 발원이므로 그만큼 충분히 經寫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階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忠烈王以後는 功德主나 寫經制作의 施財者들이 거의가 親元系의 人士가 아니면 功臣 嬖臣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적으로 發願文의 내용도 형식적으로는 皇帝萬年이니 國王千秋니 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願文은 功德主나 혹은 施財者들의 先考나 亡夫나 亡母의 勳業을 위로하고 施財者들의 現世的인 福樂을 빌며 次生에서 극락왕생하기를 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二)과 (二) (三十)의 경우는 寫經을 하고자 하는 열성에 의해 經典을 寫成했다는 내용을 적고 있지만 그 이외의 작품들은 거의가 祈福의 內容을 담고 있는 發願文들

을 가지고 있다. 寫經의 본래 목적이 功德을 쌓는 일이라고는 하지마는 당시 권력층의 人士들이 寫經의 功德主가 되고 施財者가 된 근처에는 祈福의인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高麗末의 불교의 動向과 불한했던 사회심리적인 일면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① 權熹耕 「高麗寫經의 發願文에 관한 研究(Ⅰ)」(曉星女子大學校 研究論文集 第30輯·1985)의 發願文 原文參照.
- ② 圖表(2) 參照.
- ③ 圖表(3) 참조.
- ④ 圖表(1) 참조.
- ⑤ 日本日岐의 安國寺所藏의 「大般若經」으로 이에 관해서는 權熹耕 「東長寺所藏의 紺紙金子佛說彌勒成佛經에 관한 一考察」(考古美術 165호·3월호·韓國美術史會刊行).
- ⑥ 「高麗史」百官志卷第三十一·西班牙條 金吾衛 참조.
- ⑦ 「高麗史」百官志卷三十一·西班牙條 참조.
- ⑧ 「高麗史」百官志卷三十一·文散階 참조.
- ⑨ 大개 年號가 쓰여지고 몇年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 年號가 바뀌는 해이다. 그러므로 淸寧으로만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이는 淸寧十年이며 高麗文宗一八年이다.
- ⑩ 國王發願의 寫經은 「高麗國王發願」이라 쓰고 있으며 王室發願의 寫經인 「大寶續經」의 경우도 金致陽과 皇甫 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다. 前掲書 「高麗寫經의 發願文에 관한 研究(Ⅰ)」 참조.
- ⑪ 寫經이나 版經의 發願文에는 일반적으로 君王과 國家의 안전을 위해서 五穀豐登하여 백성이 편안하기를 빌고 그 다음 發願者의 소망을 빌고 있다. 이는 일단 王室이 든든하여야 한다는 價値觀에서 출발했으나 나중에 이는 形式的인 것이 되고 만듯하다.
- ⑫ 「高麗史」文宗世家 7年 11年條.
- ⑬ 「高麗史」文宗世家 17年條.
- ⑭ 圖表(12) 참조.
- ⑮ 「高麗史」世家 高宗 26年, 32年, 36年, 37, 39年條 참조.
- ⑯ 「高麗史」世家 36年條 참조.
- ⑰ 圖表(13) 참조.
- ⑱ 福建은 唐中期以後 商業의 發展을 했고 宋代에 있어서 는 伎藝人·僧侶·道士 등이 貿易商·運輸業 등을 경영하는 福建 특유의 尤대를 사회적으로 경제적 으로서 연립하고 있었다. 斯波義信 「宋代における福建商人의 活動とその

- 社會經濟的背景」(和田博士稀記念東洋史論叢) 참조.
- ⑲ 「朝鮮王朝實錄」世宗地理志 黃海道 瑞興條.
- ⑳ 「高麗史」卷第三十一 忠烈王 20年 7月條.
- ㉑ 塚本善隆 「石經雲居寺と石刻大藏經」(東方學報第五冊 副刊).
- ㉒ 圖表(14) 참조.
- ㉓ 「高麗史」百官志 文散階條 참조.
- ㉔ 「高麗史」百官志 宗簿寺條.
- ㉕ 圖表(15) 참조.
- ㉖ 過去에는 開國寺 出土로 國立博物館가드에 정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博物館陳列品圖錄」(朝鮮總督府)에는 南溪院石塔에서 출토된 것으로 밝히고 있음. 張忠植 「韓國寫經目錄」(佛教美術 7·東國大學校博物館) 참조.
- ㉗ 權熹耕 「高麗寫經의 時代의 背景에 관한 考察」 「三國遺事를 通해 본 高麗後期의 思想的 影響」(傳統文化研究) 曉星女子大學校傳統文化研究所·1985·5·5·15).
- ㉘ 上同.
- ㉙ 忠烈王이 특히 廉丞益을 총애하였고 元이 術士를 구하매 王이 丞益을 바쳤다는 기록이 「高麗史」列傳廉丞益條에 실려있는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특별했다.
- ㉚ 神呪의인 것을 誦讀하였다는 「高麗史」列傳廉丞益條를 감안할 때 그가 寫成할 수 있는 經典은 密敎經典인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다.
- ㉛ 法華經을 寫經하거나 誦하면 靈驗이 있다는 「藥王菩薩本事品」의 內容은 法華靈驗의 체험적 내용이 수록된 「法華靈驗傳」 발전을 단생시켰다. 許興植 「眞靜國師의 生涯와 時代認識」(東方學 三十五輯·延世大學校 國學研究所 1983·3) 참조.
- ㉜ 元世祖는 即位 다음해인 中統元년에 八思巴리 國師로 삼고 元皇帝의 宗宗의 宗教生活이 八思巴系의 喇嘛敎가 中樞가 된다. 「元史」世祖世家.
- ㉝ 「高麗史」百官志 文散階條.
- ㉞ 「高麗史」百官志 內府寺.
- ㉟ 圖表(17) 참조.
- ㊱ 圖表(18) 참조.
- ㊲ 圖表(19와 20) 참조.
- ㊳ 「元史」百官志十三 文散官 참조.
- ㊴ 「元史」百官志二 典瑞院條 참조.
- ㊵ 前掲書 「石經雲居寺と石刻大藏經」 참조.
- ㊶ 「高麗史」忠惠世家條 六十三 참조.
- ㊷ 圖表(21) 참조.
- ㊸ 圖表(22) 참조.

- ⑫ 寫經하는 일 그 자체가 功德을 쌓는 일이며 寫經을 위해 施財하는 일도 바로 功德을 쌓는 일이라는 데 대한 義意.
- ⑬ 圖表(24) 참조.
- ⑭ 高麗後代將軍을 護軍이라 칭했다.
- ⑮ 「高麗史」兵志五軍條·「靖宗十一年 五月、揭榜云、國家之制、近仗及諸衛 每領、設護軍一(下略)」.
- ⑯ 「高麗史」兵志、百官志 西班牙條 참조.
- ⑰ 「高麗史」百官志 西班牙條 참조.
- ⑱ 「高麗史」元宗世家 참조.
- ⑲ 前揭書 忠烈王世家二十三年條 참조.
- ⑳ 前揭書 忠烈王世家二十五年條 참조.
- ㉑ 前揭書 忠烈王世家二十六年·二十九年條 참조.
- ㉒ 前揭書 忠烈王三十一年、三十二年條 참조.
- ㉓ 前揭書 忠烈王三十三年、三十四年條 참조.
- ㉔ 前揭書 忠肅王八年條 참조.
- ㉕ 圖表(25) 참조.
- ㉖ 圖表(26) 참조.
- ㉗ 圖表(27) 참조.
- ㉘ 圖表(28) 참조.
- ㉙ 「高麗史」列傳卷第三十五 任伯顏禿古思條 참조.
- ㉚ 上同.
- ㉛ 圖表(29) 참조.
- ㉜ 「高麗史」世家 忠肅王十三年七月條 참조.
- ㉝ 前揭書 同王十四年十一月條 참조.
- ㉞ 前揭書 忠惠王元年條 참조.
- ㉟ 忠肅王後元年에 入元한 것이 아닌가 본다. 「高麗史」世家 忠肅王後元年條 참조.
- ㊱ 圖表(30) 참조.
- ㊲ 無畏國統.
- ㊳ 「高麗史」忠肅王即位年條 參照.
- ㊴ 최경진 著 「緇門私記」(해인사 총림승가학원. 一九七八年 一二月 刊行)의 P. 九二 및 「三國遺事」卷第三塔像部 第四「四神山·掘佛山·萬佛山」참조.
- ㊵ 密陽肇源寺.
- ㊶ 天台宗.
- ㊷ 至治二年.
- ㊸ 密陽肇源寺寶鑑國師妙應塔碑(朝鮮金石文總覽附三六條 참조.)
- ㊹ 「高麗史」忠烈王二十八年四月辛未六 참조.

- ㊺ 이 寫經이 製作되던 忠肅王後七年에는 이미 金延은 僉議評理를 致仕하고 있었다. 므로 그 致仕한때가 忠烈王三十四年 以前일 수도 있다.
- ㊻ 前揭書·權熹耕 「高麗密經의 發願文에 關한 研究」(1) 참조.
- ㊼ 圖表(32) 참조.
- ㊽ 「高麗史」百官志文散階 참조.
- ㊾ 上同.
- ㊿ 「高麗史」百官志文散階條 참조.
- 80 「高麗史」百官志 西班牙條 참조.
- 81 「高麗史」百官志 西班牙條 참조.
- 82 圖表(33) 참조.
- 83 圖表(34) 참조.
- 84 圖表(35) 참조.
- 85 圖表(36) 참조.
- 86 四恩은 두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父母·國王·衆生·三寶의 은혜로 보, 는 것과 다른 하나는 父母·師長·國王·施主의 恩惠로 보는 것이다.
- 87 圖表(37) 참조.
- 88 「高麗史」百官志諸妃公主府條 참조.
- 89 圖表(38) 참조.
- 90 「高麗史」百官志成均館條 참조.
- 91 上同.
- 92 圖表(39) 참조.
- 93 火塗·刀塗·血塗로서 지옥·아귀·축생을 의미함.
- 94 李能和 「朝鮮佛教通史」(慶熙出版社·一九六八年刊行) P. 353 참조.
- 95 禪覺王師은 惠勤으로 「朝鮮金石文總覽」上(亞細亞文化社·一九七六刊行)의 「楊州僧巖寺禪覺王師碑」참조.
- 96 圖表(40) 참조.
- 97 圖表(42) 참조.
- 98 圖表(43) 참조.
- 99 圖表(44) 참조.
- 100 圖表(47) 참조.
- 101 圖表(46) 참조.
- 102 圖表(48) 참조.
- 103 圖表(11) 참조.
- 104 「高麗史」百官志諸司都監各色條 참조.
- 105 「高麗史」百官志二大盈署條 참조.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자
(一)	大寶積經	穆宗九年 (二〇〇六)	세로 二七、二 가로 八四、一	卷本	變相銀泥 紺紙金字	日本文化廳
(二)	佛說彌勒成佛經	顯宗六年 (二〇一五)	세로 二五、八 가로 三〇〇、三	"	"	日本福岡市東長寺
(三)	大般若波羅密 多經卷一七五	文宗十八年 (二〇六四)	세로 五五	"	"	趙明基
(四)	大般若經卷二	高宗九年 (一一二二)	세로 三〇、〇 가로 一一、七	"	白紙墨書	日本京都南禪寺
(五)	法華經書塔	高宗三六年 (一一四九)	세로 二二、五〇 가로 六一、〇	卷本	絹本金銀泥	日本救王護國寺
(六)	不空羅索引神 變眞言經卷一三	忠烈王元年 (一一七五)	세로 三〇、三 가로 一〇、二〇	"	紺紙銀泥	黃壽永
(七)	文殊師利問菩提經	忠烈王二年 (一一七六)	세로 一九 가로 二八、一	원형 卷本 현상 折本	"	日本文化廳
(八)	菩薩善戒經卷八	忠烈王 6年 (一一八〇)	세로 三一 가로 一三〇〇	卷本	"	東國大博物館
(九)	顯識論	忠烈王 一〇年 (一一八四)	二三、六	折本 (현상 本)	"	延世大圖書館
(一〇)	佛說雜藏經	"			紺紙金泥	日本大和文華館
(一一)	「妙法聖念處經」	忠烈王 一二年 (一一八五)		折本	紺紙金字	中共天津博物館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처
(一一)	佛說菩薩本行經卷下	忠烈王 一五年 (一一八九)	세로 一九〇 가로 七一六、五	卷本	紺紙銀泥	서울湖巖美術館
(一二)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一、七二、七三 및 普賢行願品	忠烈王 一七年 (一一九一)	세로 三一〇 가로 一一〇	折本	紺紙金銀泥	京都國立博物館
(一三)	妙法蓮華經 一部七卷	忠烈王 二〇年 (一一九四)	세로 三〇、五 가로 一一〇	"	紺紙銀泥	日本京都寶積寺
(一四)	妙法蓮華經卷第七卷本一部	忠烈王代 廉丞益발원	세로 三一〇	卷本	"	國立中央博物館
(一五)	蘇悉地羯羅供養法上	忠烈 혹은 忠宣王代	세로 三〇、三 가로 九五九、六	"	紺紙金泥	日本滋賀縣西明寺
(一六)	妙法蓮華經 卷第五	忠宣王 三年 (一一三一)	세로 三〇、三 가로 三八〇、〇	"	紺紙銀泥	日本京都博物館
(一七)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	忠宣王代 (至大年間)	세로 二六、四 가로 九、五	折本	紺紙銀泥 變相金泥	趙明基
(一八)	妙法蓮華經卷第一	忠肅王 二年 (一一三五)	세로 三三、五 가로 一一、三	"	紺紙金泥	日本金澤大乘寺
(一九)	妙法蓮華經卷第三·四·五·六·七	"	"	"	"	日本天倫寺
(二〇)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六·十七	忠肅王 一一年 (一一三四)	세로 三三、五 가로 一一、三	"	紺紙銀泥	東國大博物館
(二一)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〇·四一	"	"	"	四一卷에 變相有	"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처
(二二二)	阿育太子法益壞目因緣經	忠肅王 一二年 (一三二五)	세로 二三、七 가로 二〇九	卷本	紺紙銀泥	日本京都博物館
(二四)	妙法蓮華經 一部七卷	忠肅王 一二年 (一三二五)	세로 二九、一 가로 一一、〇	折本	變相金泥 紺紙銀泥	日本小濱羽賀寺
(二五)	妙法蓮華經 一部七卷	忠肅王 一七年 (一三三〇)	세로 三六、二 가로 一四	"	變相金泥 白紙墨書	趙明基
(二六)	妙法蓮華經 一部八卷	忠肅王後元年 (一三三二)	세로 三一、六 가로 一〇、九	"	紺紙銀泥	日本佐賀博物館
(二七)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忠肅王後 三年 (一三三四)	세로 三四、七 가로 一一、四	"	紺紙金泥	湖林美術館
(二八)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	忠肅王後 五年 (一三三六)	세로 三一、八 가로 一〇、七	"	紺紙銀泥	日本神戶福祥寺
(二九)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一	忠肅王後 六年 (一三三七)	세로 三一 가로 八、五八	卷本	紺紙銀泥 變相金泥	湖巖美術館
(三〇)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忠肅王後 七年 (一三三八)	세로 三一、〇 가로 八五八、〇	折本	褐色紙銀泥	서울國立中央博物館
(三一)	妙法蓮華經 一部七卷	忠肅王後 七年 (一三三八)	세로 三一、三 가로 一一、七	"	"	國立博物館
(三二)	妙法蓮華經 一部六卷(第四卷결본)	忠惠王 一年 (一三四〇)	세로 三一、八 가로 一〇、八	"	紺紙金泥	日本佐賀縣立博物館
(三三)	佛說阿彌陀經	忠惠王 二年 (一三四一)	세로 二八、八 가로 八、七	"	"	英國빅토리아·알버트미술관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자
(三四)	妙法蓮華經 (燒經)	忠穆王 一年 (二三四五)	세로三八、八 가로一四、二	折本	白紙墨書	日本唐津市鏡神社
(三五)	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神像合部	忠定王 二年 (二三五〇)	세로二八、八 가로一一	"	紺紙金泥	國立中央博物館
(三六)	金剛般若波羅密經	忠定王 三年 (二三五一)	세로二六、〇 가로一一、〇	"	"	日本豊橋太平寺
(三七)	妙法蓮華經卷第七卷本一部	恭愍王 二年 (二三五三)	세로三一、一 가로一一、〇	"	紺紙銀泥	日本根津美術館
(三八)	首楞嚴經卷第十	恭愍王 五年 (二三五六)	세로三〇、五 가로一一、二	"	麻紙銀泥	慶北大學校博物館
(三九)	大方廣圓覺修多羅三議經(前面) 六祖壇經(背面)	恭愍王 六年 (二三五七)	세로二六、〇 가로一一、二	"	白紙金泥	湖林美術館
(四〇)	金剛般若波羅密多經	恭愍王 一六年 (二三六七)	세로二九、五 가로一〇、四	"	白紙金字	日本佐賀市本庄鹿子慶間寺
(四一)	妙法蓮華經卷七	恭愍王 二二年 (二三七三)	"	"	白紙金泥	서울國立中央博物館
(四二)	妙法蓮華經一部七卷	恭愍王 二二年 (二三七三)	세로三一、四 가로一一、七	"	茶褐色楮紙 銀泥	서울國立中央博物館 (靈岩郡岬寺)
(四三)	"	禡王 三年 (二三七七)	세로三一、八 가로一一、〇	卷本	白紙墨書表紙 紺紙銀泥變相 白紙金泥	湖林美術館
(四四)	妙法蓮華經卷第七	禡王 一二年 (二三八六)	세로三三、五 가로一一、五	折本	紺紙銀泥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처
(四五)	妙法蓮華經卷第一과 卷第六	禰王 一四年 (二三八八)	세로 三四、八 가로 一一、六	折本	紺紙銀泥 變相金泥	忠南公州寺谷面雲岩里麻谷寺
(四六)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恭讓王 一年 (二三八九)	세로 三四、七 가로 一一、四	"	白紙金泥	東國大學校博物館
(四七)	妙法蓮華經卷第一·卷第三	恭讓王 一年 (二三八九)	세로 三七、五 가로 二七、五	卷本	白紙墨書	慶北安東郡西後面者品洞廣興寺
(四八)	地藏菩薩本願經卷中	高麗	세로 三五、二 가로 一一、〇	折本	紅紙銀泥	東國大學校博物館
(四九)	佛名記卷第十二	"	세로 二九	卷本	紺紙金銀泥	京都市加藤源兵衛
(五〇)	佛說大報父母息重經	"	세로 三一、五 가로 一一、八	折本	"	日本京都寶積寺
(五一)	妙法蓮華經卷第五	"	세로 三〇、五 가로 一三	"	白紙銀泥	日本京都瑞光寺
(五二)	妙法蓮華經卷第四	"	세로 三七、五 가로 二四五	"	紺紙銀泥	日本京都博物館
(五三)	大方佛華嚴經普賢行願品	"	세로 三一、一 가로 一一	"	白紙金泥	"
(五四)	妙法蓮華經卷第四	"	세로 二九、六 가로 一二、八	"	紺紙銀泥	"
(五五)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四	"	세로 三一、六 가로 一二、〇	"	褐紙銀泥	日本京都市南禪寺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자
(五六)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五、卷第三十六	高麗	가로 세로 一一、〇 三二、〇	折本	紺紙金泥	日本大和文華館
(五七)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	가로 세로 一一、〇 三二、〇	"	"	日本名古屋德川黎明會
(五八)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五十九	"	가로 세로 一一 三一、〇	"	"	"
(五九)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十八	"	가로 세로 一一 三一、〇	"	白紙墨書	日本京都市知恩院
(六〇)	妙法蓮華經卷第五	"	가로 세로 一二 三五、一	"	紺紙銀泥	國立中央博物館
(六一)	大廣佛華嚴經卷第四十七	"	가로 세로 一一、一 三三、二	"	"	"
(六二)	妙法蓮華經卷第四(表紙에 匪解堂 眞蹟이라 써여 있음)	"	가로 세로 一一、七 二九、一	"	"	"
(六三)	妙法蓮華經卷第六	"	가로 세로 一一、〇 三六、〇	"	白紙金泥書	"
(六四)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	"	가로 세로 一一、三 三六	"	紺紙銀泥	"
(六五)	金泥法華經卷第六(如來壽量品)	"	가로 세로 一〇、五 二八、〇	折本斷片	紺紙金泥	日本京都博物館
(六六)	妙法蓮華經卷第二	"	가로 세로 二〇、六 二九、六	折本	紺紙銀泥	"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자
(六七)	法華經斷片	高麗	세로 三九、三 가로 一二、五	折本	白紙金泥	日本京都博物館
(六八)	菩薩善戒經卷第五	"	세로 三〇、九 가로 一、〇	"	"	國立中央博物館
(六九)	妙法蓮華經 卷第二·三·四·七	"	세로 三六、一 가로 一二、四	"	白紙墨書	"
(七〇)	妙法蓮華經	"	세로 三三、三 가로 一五	"	白紙金泥	"
(七一)	壯紙金字經	"	세로 三七、二 가로 一二、五	"	紺紙金泥	東國大博物館
(七十二)	觀無量壽經	"	세로 三三 가로 一三	"	紅紙銀泥	日本京都知恩院
(七三)	金光明經散暗魂神品第十	"	세로 二七、七 가로 二七、七	"	白紙墨書	서울尹章燮
(七四)	金光明經卷第四	"	세로 二八、一 가로 二八、一	"	"	"
(七五)	金光明經卷第三	"	세로 二五、七 가로 二五、七	"	"	"
(七六)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六	"	"	"	紺紙金泥	通度寺博物館
(七七)	妙法蓮華經卷第七	"	"	"	"	서울尹章燮

번호	명칭	년대	크기	형태	재료	소장자
(七八)	大方佛華嚴經卷第三十七	高麗	가로 세로 一一 三〇	折本	紺紙銀泥	湖林美術館
(七九)	大方佛華嚴經卷第五十六(前面) 大方佛華嚴經卷第六	"	가로 세로 一〇、五 三一、二	"	紺紙銀泥變相 金泥	"
(八〇)	大方佛華嚴經卷第三	"				서울尹章燮
(八一)	大方佛華嚴經卷第十三	"	세로 二七、五	卷本	紺紙銀泥	"
(八二)	妙法蓮華經卷第二	"	가로 세로 一〇、三 二九、三	折本	"	서울尹章燮
(八三)	大方佛華嚴經卷第一	"	가로 세로 一 cm 三一 cm	"	紺紙金泥	日本奈良個人
(八四)	大方佛華嚴經卷第七十八	"	가로 세로 一一 cm 三一 cm	"	"	日本京都個人
(八五)	大方佛華嚴經卷第四十一	"	세로 二七 cm	卷子本	"	金山東五大博物館
(八六)	大方佛華嚴經卷第六十二	"	가로 세로 一一 cm 三一、五 cm	折本	紺紙銀泥	韓國精神文化研究院圖書館
(八七)	大方佛華嚴經	"	가로 세로 一一 cm 二八、七 cm	"		國立中央博物館
(八八)	央掘魔羅經	"	가로 세로 一一、三 cm 三〇、二 cm	"	褐紙金泥	서울個人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자
(八九)	妙法蓮華經卷第五	高麗	세로 三〇 cm 가로 一一 cm	折本	紺紙銀泥	東國大博物館
(九〇)	大般若波羅密多經卷第九	"	세로 二七, 七 cm		白紙墨書	서울尹章燮
(九九)	妙法蓮華經卷第五		세로 二七, 九 cm		"	"
(九二)	妙法華嚴經卷第一	高麗	세로 三〇, 六 가로 一一, 三	折本	紺紙金泥	慶北大博物館
(九三)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五	"	세로 二九 가로 一一, 三	"	白紙金泥	韓國精神文化研究院圖書館
(九四)	阿彌陀經	"				東國大博物館
(九五)	妙法蓮華經卷第四	"	세로 三三, 七 가로 一一, 五	折本	白紙金泥	"
(九六)	妙法蓮華經卷第二, 四·五·六	"	세로 二一, 三 가로 一四, 三	"	紺紙銀泥	"
(九七)	妙法蓮華經卷第五 (背面竹그림有)	"	세로 三〇 가로 一〇, 七	"	"	"
(九八)	梵網菩薩戒法合部(前面) 受菩薩戒(裏面)	"	세로 二六, 五 가로 九, 七	"	紺紙銀泥 變相金泥	"
(九九)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表紙만 周經第十六에 가서 붙여 있음)			"	紺紙銀泥	"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처
(一一〇)	妙法蓮華經卷第一	"	"	"	白紙墨書 變相金泥	서울個人
(一〇九)	妙法蓮華經卷第四	麗末鮮初	가로 세로 一四 三八	"	壯紙銀泥	"
(一〇八)	妙法蓮華經卷第三	"	가로 세로 一一、二 三二、五	"	"	"
(一〇七)	妙法蓮華經卷第六	"	가로 세로 一一、三 三三	"	"	"
(一〇六)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	가로 세로 一六 四六	"	白紙墨書	"
(一〇五)	大乘寶要義論卷第八	"	가로 세로 一五、五 三二、七	"	"	"
(一〇四)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	"	가로 세로 一一、一 三一、四	"	"	서울個人
(一〇三)	妙法蓮華經卷第四	"	가로 세로 一一、九 三四、八	"	紺紙銀泥	日本東北大學校圖書館
(一〇二)	大般若波羅密多經卷第二百五	"	가로 세로 一一 三一	"	紫紙銀泥	日本浮羽郡田主丸田丁觀音寺
(一〇一)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	가로 세로 一一 三四	"	紺紙金泥	日本
(一〇〇)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	高麗	가로 세로	折本	褐色紙銀泥	日本

번호	명칭	년대	크기 cm	형태	재료	소장자
(一一九)	天尊玉樞寶經	朝鮮	세로 一〇、七 가로 八、九	"	"	日本福岡個人
(一二八)	金剛般若波羅密多經	世宗 三十二年 (一四五〇)		"	白紙金泥	國立中央博物館
(一二七)	妙法蓮華經一部七卷	太宗 一五年 (一四一五)	세로 三六、二 가로 一四	"	白紙墨書 變相金泥	全北扶安郡山內面 石浦里來蘇寺
(一二六)	寫經斷片	太宗朝	세로 三〇、六 가로 五三、三	"	紺紙銀泥	日本京都博物館
(一二五)	〔高麗영향 아래 있는〕 梵本聖觀自在大悲掄持切能依經錄	朝鮮太祖六年 (二三九八)	세로 一〇、五 가로 五、〇	"	紺紙金泥	日本小浜鹿島石田恭三
(一一四)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六十七、六十八	朝鮮太祖 (一九九三)	세로 三一、三 가로 二五、〇	折本	"	日本京都博物館
(一二三)	佛說高王觀世音經	"		"	"	"
(一一二)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八	"	세로 三一、四 가로 一二、二	"	白紙墨書	서울·尹章燮
(一一一)	七佛所說神呪經卷第二	麗末鮮初	세로 三一 가로 一一	折本	白紙銀泥	서울個人